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책임연구원

황진구

공동연구원

허효주

IN

Y

P

II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

기초분석보고서 Ⅲ

-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 책임연구원 :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안현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아동·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가장 많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급속한 신체 변화와 인지 발달, 생활 반경과 사회 관계의 확대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등의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이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일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서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는 드물었다. 2003~2008년 기간 동안 본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는 청소년의 생활·행동·의식 전반에 대한 국내 최초의 종단조사로서 청소년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 청소년패널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연구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 표집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총 7,071명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조사 데이터의 일반 공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 5차년도인 올해에는 제1~4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정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조사결과를 영역별로 정리한 기초분석보고서와 리서치 브리프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 KCYPS)의 초4 패널과 중1 패널 제1~3차년도(2010년~2012년) 조사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초4 패널)까지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중1 패널)까지의 체험활동과 문화활동 참여 정도의 변화와 추세를 파악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1 패널의 3년간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를 살펴보면,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봉사 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은 중학교 2학년에 감소했다가 3학년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대부분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 규모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중학교 3년간 희망하는 체험활동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학·정보 활동, 모험·개척 활동, 환경보존 활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희망 정도가 감소한 반면에, 건강·보건 활동이나 교류 활동, 문화·예술 활동, 직업체험활동 등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중학교 3년간 학교내 동아리활동의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학교외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참가에 따른 만족도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문화활동 참여율은 6학년이 되는 3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험율과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문화활동 참여율도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키워드: 초등학생, 중학생,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문화활동, 종단분석,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체험활동과 문화활동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성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단순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인식 등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삶의 만족도나 사회적 관계의 발달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실태 변화를 다년간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변화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종단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이 연구는 2010년 당시 각각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던 청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되는 2012년까지의 3년간 체험활동과 문화활동 참여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실태와 추세를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님.

2. 연구내용과 방법

- 첫째,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 3학년이 되는 시기인 2012년까지의 3년간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의 참여정도를 참여율, 참여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로 구분하여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음. 즉, 9가지 체험활동 영역별로 중학교 청소년의 3년간 참여정도의 변화를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의 소득수준별 차이점을 분석하였음. 또한 동아리활동을 학교내 공식동아리와 학교외 공식동아리 활동으로 구분하고 참여정도를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의 소득수준별 차이점을 분석하였음.
- 둘째, 2010년 초등학교 4학년이 6학년이 되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년간 문화활동(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 및 여행 등의 참여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의 소득수준별 차이점을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경우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78명, 2차년도(2011년)의 조사 성공 사례 2,264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 사례 2,219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인 배경변인별로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또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경우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51명, 2차년도(2011년) 조사 성공 사례 2,280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 사례 2,259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인 배경변인별로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SPSS 20.0을 통계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음.

3. 주요결과

1) 중1 패널의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년간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봉사 활동(61.3% → 52.9% → 56.8%)과 직업체험활동(34.0% → 21.3% → 28.2%)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참여율이 감소했다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대부분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 규모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체험활동 참여율과 동일하게 중학교 1학년 시기에서 2학년 시기에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높아졌다가 3학년 시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다만, 봉사 활동(9.93시간 → 10.37시간 → 10.75시간)은 3년간 계속해서 참여시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체험활동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체험활동 참여 후 만족도를 살펴보면, 직업체험 활동과 자기개발 활동은 중학교 3년간 계속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과학·정보 활동과 봉사 활동은 3년간 계속해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참여를 희망하는 체험활동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학·정보 활동, 모험·개척 활동, 환경보존 활동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희망 정도가 감소한 반면에, 건강·보건 활동이나

교류 활동, 문화·예술 활동, 직업체험 활동 등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학년별로 체험활동 영역별 희망 체험활동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중학교 1학년)에는 모험·개척 활동(1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1년(중학교 2학년)과 2012년(중학교 3학년)에는 직업체험 활동(2011년 17.0%, 2012년 20.0%)이 가장 높게 나타남.

2) 중1 패널의 동아리활동 참여정도 변화

- 학교내의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28.7%,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33.3%,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36.8%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학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75%, 중학교 2학년에서는 6.4%,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5.4%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성별 동아리 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학교내 동아리의 경우는 여학생이, 학교외의 동아리는 남학생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학교내의 공식적인 동아리활동에 대한 참여시간은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17.67시간, 중학교 2학년 24.94시간, 중학교 3학년 24.07시간으로 나타났고, 학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시간은 중학교 1학년 14.95시간, 중학교 2학년 25.66시간, 중학교 3학년 20.18시간으로 조사됨.
- 반면에 동아리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는,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중학교 1학년 3.24, 중학교 2학년 3.18, 중학교 3학년 3.17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 만족도가 낮아지고,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 3.21에서 중학교 2학년 3.41, 중학교 3학년 3.42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3) 초4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 변화

-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2010년)부터 6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문화활동(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의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77.8%, 5학년에는 81.6%, 6학년에는 79.4%로 조사됨(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조사됨).
-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2010년)부터 6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문화활동에

참여한 정도(횟수)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3.76회, 5학년에는 4.36회, 6학년에는 4.12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됨(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험빈도가 높게 조사됨).

-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2010년)부터 6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가족이나 단체를 통해 1박 이상의 여행(학교나 학급 전체가 참여한 수련회 등은 제외)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68.2%, 5학년 시기에는 75.9%, 6학년 시기에는 75.5%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험율이 높게 조사됨).

4) 중1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 변화

-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문화활동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79.7%, 2학년 시기에는 79.2%, 3학년 시기에는 78.2%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됨(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조사됨).
- 문화활동 참여정도(횟수)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3.44회, 2학년 시기에는 4.06회, 3학년 시기에는 4.48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가족·단체 여행 경험여부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67.7%, 2학년 시기에는 71.4%, 3학년 시기에는 63.6%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험율이 높게 조사됨).

4. 정책제언

- 첫째, 청소년의 성장과정 및 요구에 맞는 전문화된 체험활동 개발 및 시행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체험활동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경우는 모험·개척 활동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는 직업체험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반면에 참여율이 가장 높은 봉사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활동의 경우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학년별로 청소년의 학령기별 특성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한 전문화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격차 해소방안 마련

-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3년간 문화활동과 여행 등의 경험율과 참여정도,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년간 체험활동 참여율과 참여정도, 문화활동과 여행의 참여율과 참여정도 등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년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나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문화활동과 같이 사회적 기반이 필요한 활동의 경우는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외국여행의 경우는 이러한 배경에 따른 차이가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초등학교 시기에 나타나는 격차가 중학교 시기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과 문화활동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거주지역의 규모나 성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중학생을 위한 학교 외 동아리활동 활성화 및 학교 인증제도 도입

- 학교내 동아리활동 참여율이 학교외 동아리활동 참여율보다 매우 높게 조사되었고, 학교내 동아리활동의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학교 외에서의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참여한 후의 만족도는 학교 외 동아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따라서 학교외에서 진행되는 동아리활동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학교 밖에서 참여하는 동아리활동을 교내 동아리활동과 유사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넷째, 청소년의 지속적인 체험활동 참여 유지를 위한 제도와 기반 강화

- 조사결과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이나 참여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자원직업체험 활동과 직업체험 활동의 참여율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즉, 청소년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영역의 체험활동에 대한 향후 참여 희망수준이 가장 낮게 조사된 것은 앞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함.
- 또한 체험활동에 비해 문화활동의 참여율은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선호도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확대,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마일리지 제도 등)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6
3. 분석 대상 및 방법	7
II.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실태 및 추이 분석	15
1. 중1 패널의 체험활동 참여 실태 및 추이 분석	17
1)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 변화	17
2)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시간 변화	23
3)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 만족도 변화	29
4)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 희망 변화	35
2. 중1 패널의 동아리활동 참여 실태 및 추이 분석	39
1)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39
2)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41
3)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44
III. 청소년의 문화활동 등 경험 실태 및 추이 분석	49
1. 초4 패널의 문화활동 등 경험 실태 및 추이 분석	51
1) 초4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 변화	51
2) 초4 패널의 가족·단체 여행 경험 변화	57
3) 초4 패널의 외국방문 경험 변화	63
2. 중1 패널의 문화활동 등 경험 실태 및 추이 분석	72
1) 중1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 변화	72

2) 중1 패넬의 가족·단체 여행 경험 변화	78
3) 중1 패넬의 외국방문 경험 변화	84
4) 중1 패넬의 팬덤활동 변화	93
IV. 요약 및 정책제언	103
1. 분석결과 요약	105
2. 정책 제언	107
참고문헌	109
ABSTRACT	113

표 차례

<표 I -1> 초4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9
<표 I -2> 중1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1
<표 II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율 변화	17
<표 II -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율 변화	20
<표 II -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율 변화	21
<표 II -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율 변화	22
<표 II -5>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시간 변화	23
<표 II -6>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시간 변화	25
<표 II -7>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시간 변화	26
<표 II -8>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시간 변화	28
<표 II -9>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29
<표 II -10>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 만족도 변화	31
<표 II -1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 만족도 변화	32
<표 II -1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 만족도 변화	34
<표 II -1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희망 정도 변화	35
<표 II -14> 참여 희망 1순위 체험활동 영역 변화	37
<표 II -15> 참여 희망 2순위 체험활동 영역 변화	38
<표 II -16> 참여 희망 3순위 체험활동 영역 변화	38
<표 II -17>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39
<표 II -18>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40
<표 II -19>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40
<표 II -20> 가구 소득수준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41
<표 II -21>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42

<표 II-22>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43
<표 II-23>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43
<표 II-24> 가구 소득수준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44
<표 II-25>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45
<표 II-26>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46
<표 II-27>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46
<표 II-28> 가구 소득수준별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47
<표 III-1> 초4 패넌의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51
<표 III-2> 초4 패넌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52
<표 III-3> 초4 패넌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52
<표 III-4> 초4 패넌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53
<표 III-5> 초4 패넌의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54
<표 III-6> 초4 패넌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55
<표 III-7> 초4 패넌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55
<표 III-8> 초4 패넌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56
<표 III-9> 초4 패넌의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57
<표 III-10> 초4 패넌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58
<표 III-11> 초4 패넌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59
<표 III-12> 초4 패넌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59
<표 III-13> 초4 패넌의 가족·단체 여행정도 변화	60
<표 III-14> 초4 패넌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정도 변화	61
<표 III-15> 초4 패넌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정도 변화	61
<표 III-16> 초4 패넌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정도 변화	62
<표 III-17> 초4 패넌의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63

<표 III-18> 초4 패널의 성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64
<표 III-19>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64
<표 III-20>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65
<표 III-21> 초4 패널의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66
<표 III-22> 초4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67
<표 III-23>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67
<표 III-24>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68
<표 III-25> 초4 패널의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69
<표 III-26> 초4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70
<표 III-27>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70
<표 III-28>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71
<표 III-29> 중1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73
<표 III-30> 중1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73
<표 III-31>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74
<표 III-32>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75
<표 III-33> 중1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76
<표 III-34> 중1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77
<표 III-35>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78
<표 III-36>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78
<표 III-37> 중1 패널의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79
<표 III-38> 중1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80
<표 III-39>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81
<표 III-40>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81
<표 III-41> 중1 패널의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82
<표 III-42> 중1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83

<표 III-43> 중1 패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83
<표 III-44> 중1 패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84
<표 III-45> 중1 패닐의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85
<표 III-46> 중1 패닐의 성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86
<표 III-47> 중1 패닐의 도시규모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86
<표 III-48> 중1 패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87
<표 III-49> 중1 패닐의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88
<표 III-50> 중1 패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89
<표 III-51> 중1 패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89
<표 III-52> 중1 패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90
<표 III-53> 중1 패닐의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91
<표 III-54> 중1 패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92
<표 III-55> 중1 패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92
<표 III-56> 중1 패닐의 가구 소득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93
<표 III-57> 중1 패닐의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94
<표 III-58> 중1 패닐의 성별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95
<표 III-59> 중1 패닐의 도시규모별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95
<표 III-60> 중1 패닐의 가구 소득수준별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96
<표 III-61> 중1 패닐의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97
<표 III-62> 중1 패닐의 성별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99
<표 III-63> 중1 패닐의 도시규모별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100
<표 III-64> 중1 패닐의 가구 소득수준별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101

그림 차례

【그림 II-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율 변화	18
【그림 II-2】 학년별 체험활동 참여율 변화	19
【그림 II-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시간 변화	24
【그림 II-4】 학년별 체험활동 참여시간 변화	24
【그림 II-5】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30
【그림 II-6】 학년별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30
【그림 II-7】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희망 체험활동 변화	36
【그림 II-8】 학년별 희망 체험활동 변화	36
【그림 II-9】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39
【그림 II-10】 동아리활동 참여 시간 변화	42
【그림 II-11】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45
【그림 III-1】 초4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율 변화	52
【그림 III-2】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율 변화	53
【그림 III-3】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율 변화	54
【그림 III-4】 초4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55
【그림 III-5】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56
【그림 III-6】 초4 패널의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57
【그림 III-7】 초4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율 변화	58
【그림 III-8】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율 변화	59
【그림 III-9】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율 변화	60
【그림 III-10】 초4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61
【그림 III-11】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62
【그림 III-12】 초4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63

【그림 III-13】 초4 패넌의 성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64
【그림 III-14】 초4 패넌의 도시규모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65
【그림 III-15】 초4 패넌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66
【그림 III-16】 초4 패넌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67
【그림 III-17】 초4 패넌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68
【그림 III-18】 초4 패넌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69
【그림 III-19】 초4 패넌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70
【그림 III-20】 초4 패넌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71
【그림 III-21】 초4 패넌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72
【그림 III-22】 중1 패넌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74
【그림 III-23】 중1 패넌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75
【그림 III-24】 중1 패넌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76
【그림 III-25】 중1 패넌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77
【그림 III-26】 중1 패넌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78
【그림 III-27】 중1 패넌의 가구소득 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79
【그림 III-28】 중1 패넌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80
【그림 III-29】 중1 패넌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81
【그림 III-30】 중1 패넌의 가구소득 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82
【그림 III-31】 중1 패넌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83
【그림 III-32】 중1 패넌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84
【그림 III-33】 중1 패넌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85
【그림 III-34】 중1 패넌의 성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86
【그림 III-35】 중1 패넌의 도시규모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87
【그림 III-36】 중1 패넌의 가구소득 수준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88
【그림 III-37】 중1 패넌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89

【그림 III-38】 중1 패넌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90
【그림 III-39】 중1 패넌의 가구 소득 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91
【그림 III-40】 중1 패넌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92
【그림 III-41】 중1 패넌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93
【그림 III-42】 중1 패넌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94
【그림 III-43】 중1 패넌의 성별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95
【그림 III-44】 중1 패넌의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97
【그림 III-45】 중1 패넌의 학년별 팬덤활동 참여정도 변화	98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분석 대상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체험활동 등의 개념 사이에는 중복성이나 분류체계 등에서의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련법이나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 교류 활동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청소년 체험활동'을 사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즉,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 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교류 활동'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 활동 등에서 공통적으로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기 체험활동은 건전한 성장과 사회성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단순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인식 등 정서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사회성 발달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성,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청소년 자신 스스로를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에 청소년체험활동 참여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이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유의미하다는 연구(이미자, 2012; 이연희, 2009; 김태완, 2012) 외에도 자아탄력성(문재우·박재산, 2013)과 자아정체감(김형심, 2007)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체험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됨에 따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줄고 이에 따라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과 행복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류시영·강방훈, 2012)도 있다. 이 밖에도 김아영(2010)은 청소년 체험활동이 진로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험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단연구를 통한 다각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자(2012)에 따르면, 동아리활동 참여는 단순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진로와 미래지향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해 보고 싶은 활동으로 이어져 직업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과업 중 하나는 다양한 집단 속에서 경험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 등을 습득하는 것인데,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안정감과 이해력의 발달, 사회적 기술 획득 등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김인숙(2009)에 따르면, 청소년의 수련활동 참여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리더십 향상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체험활동을 통한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는데, 유형순(2009)은 동아리 자원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대인관계 능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체험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비참여 집단에 비하여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관우·남진열, 2011). 이 밖에도 청소년기의 체험활동 참여 경험이 성년기 사회참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민주적 질서에 대한 이해와 절차의 준수, 인간존엄성, 사회참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김진미·김태균, 2012; 도중수·성준모, 2013; 문재우·박재산, 2013 등). 즉, 청소년활동 중 체험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시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철, 2011).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성과 같은 가치관이나 태도의 형성과 관련하여 체험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배천웅·남혜선, 2013).

이처럼 청소년의 체험활동이나 문화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자아인식이나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기의 체험활동과 문화활동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자원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과 같이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지역이나 특정 교급에 초점을 맞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참여가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변화의 추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영역별 청소년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실태나 이에 따른 효과와 그 의미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매우 많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교급을 중심으로 봉사 활동 등 일부 활동에 집중되었다. 특히 조사나 분석도 1회성에 그친 횡단조사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대규모의 동일한 조사대상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험활동 참여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는 종단적 방법(패널조사)을 사용한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실태 변화를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변화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단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2010년 각각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던 청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되는 2012년까지의 3년간 체험활동과 문화활동 참여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실태와 추세를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닌다.¹⁾

1) 이 연구는 2013년 발간된 황진구·허효주·안현미(20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와 유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는데, 2013년 보고서에서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의 수준별 집단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시기 자아인식이나 사회적 발달 정도 등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에 2014년 보고서는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패널로 확대하고 문화활동이나 여행까지 확대하였고, 분석방법적 측면에서 횡단면 표준화기중치를 적용하여 통계처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에서 2013년 보고서와 차이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되는 2012년까지의 3년간 체험활동²⁾과 동아리활동 참여정도와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둘째, 2010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2년 6학년이 되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년간 문화활동 및 여행 등의 참여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결과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 3학년이 되는 시기인 2012년까지의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 참여정도를 참여율, 참여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로 구분하여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즉, 9가지 체험활동 영역별로 중학교 청소년의 3년간 참여정도의 변화를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의 소득수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아리활동을 학교내 공식동아리와 학교외 공식동아리 활동으로 구분하고 참여정도를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의 소득수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2010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 6학년이 되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년간 문화활동(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 및 여행 등의 참여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의 소득수준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련활동 영역구분에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의 영역을 ①건강·보건활동, ②과학·정보활동, ③교류활동, ④모험·개척활동, ⑤문화·예술활동, ⑥봉사활동, ⑦직업체험활동, ⑧ 환경보존활동, ⑨ 자기(인성)개발활동 등 9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체험활동을 수련활동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지 문항으로 사용한 ‘청소년 체험활동’이라는 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체험활동의 개념이나 관련 논의에 대한 사항은 황진구·허효주·안현미 (20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에 정리되어 있다.

3.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에서 층화다단계락추출법으로 표집된 3개 패널 각 2,3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경우 총 2,342명,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총 2,378명,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경우 2,351명을 원표본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경우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78명, 2차년도(2011년)의 조사 성공 사례 2,264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 사례 2,219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인 배경변인별로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경우도,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51명, 2차년도(2011년) 조사 성공 사례 2,280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 사례 2,259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인 배경변인별로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년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성별, 거주하는 도시규모, 가구의 소득수준, 가족구성, 부모학력 등으로 나누어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살펴본 현황은 <표 1-1>과 같으며, 초등학교 6학년(2012년)의 인구·사회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162명(52.4%), 여자 1,057명(47.6%)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를 서울시, 광역시,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였는데 서울 363명(16.8%), 광역시 569명(26.4%), 시군구 1,223명(56.7%)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구분의 경우,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대상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인 2010년의 가구소득 수준을 10분위수로 나눈 후, 상위 20%와 하위 20%를 기준으로 하위 20%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상위 20%를 초과한 계층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1년과 2012년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저소득 가구 청소년은 426명(20.5%), 중간 소득 수준 가구의 청소년은 1,343명(64.6%),

고소득 가구 청소년은 310명(14.9%)으로 나타났다.

부모구성은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는 1,964명(91.3%), 한부모가정인 경우는 164명(7.6%), 조손가정 16명(0.7%), 기타 가정 8명(0.4%)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성별, 거주하는 도시규모, 가구의 소득수준, 가족구성, 부모학력 등으로 나누어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살펴본 현황은 <표 1-2>와 같으며, 중학교 3학년(2012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174명(52.0%), 여자 1,085명(48.0%)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 366명(16.9%), 광역시 591명(27.2%), 시군구 1,213명(55.9%)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구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하였는데, 저소득 가구 청소년은 418명(19.6%), 중간 소득 수준 가구의 청소년은 1,330명(62.4%), 고소득 가구 청소년은 385명(18.0%)로 나타났다.

부모구성은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는 1,905명(87.9%), 한부모가정인 경우는 238명(11.0%), 조손가정 21명(1.0%), 기타 가정 4명(0.2%)로 나타났다.

항목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244	52.3	1,185	52.3	1,162	52.4
	여자	1,134	47.7	1,079	47.7	1,057	47.6
	전체	2,378	100.0	2,264	100.0	2,219	100.0
도시규모	서울	408	17.2	373	16.9	363	16.8
	광역시	618	26.0	577	26.1	569	26.4
	시군구	1352	56.8	1,258	57.0	1,223	56.7
	전체	2,378	100.0	2,208	100.0	2,155	100.0
가구소득수준	저	453	20.3	426	20.0	426	20.5
	중	1,440	64.5	1367	64.3	1,343	64.6
	고	341	15.3	332	15.6	310	14.9
	전체	2,233	100.0	2,125	100.0	2,079	100.0
가족구성	부모자녀	2135	89.9	2,005	90.8	1,964	91.3
	한부모가정	216	9.1	167	7.6	164	7.6
	조손가정	16	0.7	14	0.6	16	0.7
	기타	9	0.4	22	1.0	8	0.4
	전체	2,375	100.0	2,208	100.0	2,151	100.0

항목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	빈도	%	빈도	
부모 학력	부	중졸 이하	57	2.5	44	2.1	57
		고졸	921	41.2	806	38.6	768
		전문대졸	310	13.9	202	9.7	213
		대졸	801	35.8	920	44.1	873
		대학원졸	146	6.5	113	5.4	118
		전체	2,234	100.0	2,085	100.0	2,029
	모	중졸 이하	58	2.6	42	2.0	49
		고졸	1,173	52.1	1,031	48.8	989
		전문대졸	393	17.5	259	12.3	262
		대졸	561	24.9	723	34.3	702
		대학원졸	66	2.9	55	2.6	55
		전체	2,251	100.0	2,110	100.0	2,058
	기타 보호자	중졸 이하	7	42.5	13	66.6	9
		고졸	4	23.8	3	17.4	8
		전문대졸	2	9.3	1	5.8	-
		대졸	2	13.9	2	10.1	2
		대학원졸	2	10.5	-	-	-
		전체	17	100.0	20	100.0	19

표 1-2

중1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항목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215	51.7	1,185	52.0	1,174	52.0
	여자	1,136	48.3	1,095	48.0	1,085	48.0
	전체	2,351	100.0	2,280	100.0	2,259	100.0
도시규모	서울	408	17.3	376	17.3	366	16.9
	광역시	626	26.6	592	27.2	591	27.2
	시군구	1,317	56.0	1,210	55.6	1,213	55.9
	전체	2,351	100.0	2,178	100.0	2,170	100.0
가구소득수준	저	436	19.7	418	19.5	418	19.6
	중	1,375	62.1	1,337	62.2	1,330	62.4
	고	402	18.2	394	18.3	385	18.0
	전체	2,214	100.0	2,150	100.0	2,133	100.0
가족구성	부모자녀	2,031	86.5	1,932	89.5	1,905	87.9
	한부모가정	282	12.0	207	9.6	238	11.0
	조손가정	19	0.8	20	0.9	21	1.0
	기타	17	0.7	-	-	4	0.2
	전체	2,348	100.0	2,159	100.0	2,168	100.0

항목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	빈도	%	빈도	
부모 학력	부	중졸 이하	69	3.2	65	3.2	72
		고졸	908	41.9	772	38.3	781
		전문대졸	265	12.2	208	10.3	199
		대졸	786	36.3	874	43.3	847
		대학원졸	139	6.4	99	4.9	109
		전체	2,167	100.0	2,018	100.0	2,008
	모	중졸 이하	72	3.3	58	2.8	68
		고졸	1,245	56.6	1,085	53.1	1,080
		전문대졸	272	12.4	206	10.1	196
		대졸	549	25.0	651	31.8	656
		대학원졸	60	2.7	44	2.2	38
		전체	2,199	100.0	2,044	100.0	2,038
	기타 보호자	중졸 이하	15	77.1	22	77.1	18
		고졸	3	15.1	5	18.5	7
		전문대졸	-	-	-	-	-
		대졸	-	-	1	4.4	-
		대학원졸	2	7.9	-	-	-
		전체	20	100.0	28	100.0	24

2) 주요 변인별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첫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중1 패널)의 체험활동 영역구분과 참여정도 관련 문항은 9개의 체험활동 영역별 지난 1년간 참여여부, 참여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활동의 영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구분과 동일하게 ① 건강·보건 활동(신체단련 활동, 안전·응급처치 활동 등), ② 과학·정보 활동(모형/로봇 활동, 우주/천체 활동, 정보캠프 활동 등), ③ 교류 활동(국제교류 활동, 다문화이해 활동, 세계문화 비교 활동 등), ④ 모험·개척 활동(탐사·등반, 야영 활동, 해양 활동, 극기훈련 등), ⑤ 문화·예술 활동(지역문화, 세계문화, 어울마당, 전통예술 활동 등), ⑥ 봉사 활동(일손돕기, 캠페인, 자선·구호 활동 등), ⑦ 직업체험 활동(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 체험 등), ⑧ 환경보존 활동(생태 활동, 숲체험, 환경살리기 활동 등), ⑨ 자기(인성) 개발 활동(자기표현 활동, 심성수련 활동 등)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9가지 체험활동 영역별 지난 일 년 동안 참여한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총 참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1년 단위로 기록하게 하였고, 1박 이상의 체험활동을 한 경우 1박 당 8시간으로 계산(예: 1박 2일 → 8시간 + 4시간 = 12시간)하였다. 또한 영역별로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를 조사하였고, 만족도는 4점 Likert 척도(매우 만족한다=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로 측정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1개 체험활동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있었던 경우는 주된 내용 하나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체험활동 중 가장 하고 싶은 체험활동 영역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1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된 동아리활동 구분과 참여정도 관련 문항의 경우, 먼저 동아리활동의 유형을 학교내 공식동아리와 학교외 공식동아리로 구분하고, 각 동아리활동의 참여여부와 참여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만족도의 경우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를 조사하였고, 만족도는 4점 Likert 척도(매우 만족한다=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로 측정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초4 패널과 중1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화활동에 대한 조사는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을 문화활동 예시로 제시하고 지난 1년간 학교에서 학년 또는 학급 전체가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 참여한 횟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넷째, 초4 패널과 중1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족 또는 단체여행의 경우, 지난 1년간 학교에서 학년 또는 학급 전체가 참여한 수련회 등을 제외하고 가족과 함께 또는 단체(종교단체 또는 청소년단체 등을 통한 여행 경험을 포함)로 1박 이상의 여행 경험 횟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다섯째, 외국 여행경험에 대한 조사도 초4 패널과 중1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난 1년동안 외국에 가 본 경험에 대해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고, 외국 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서 교육 및 연수를 받은 경험(학교나 학원 다니기, 캠프 포함) 여부와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년과 개월, 일수로 기록하게 하였다.

여섯째, 중1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된 팬덤활동 참여정도 관련 문항의 경우,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유무를 먼저 질문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팬덤활동을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후 참여정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경험의 정도를 4점 Likert 척도(자주 한다=1 ~ 전혀 하지 않는다=4)로 측정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 문화활동 등의 관련 변화 분석을 위해 SPSS 20.0을 통계분석 도구로 사용하였다.

제 2 장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실태 및 추이 분석

1. 중1 패널의
체험활동 참여 실태 및 추이 분석
2. 중1 패널의
동아리활동 참여 실태 및 추이 분석

제 2 장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실태 및 추이 분석

1. 중1 패널의 체험활동 참여 실태 및 추이 분석

1)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 변화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율 변화

청소년의 체험활동영역을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 활동, 교류 활동, 모험·개척 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 활동, 직업체험 활동, 환경보존 활동, 자기개발 활동의 9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3학년(2012년)까지 3년간의 참여경험 유무를 분석하였다. 질문지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중학생이 된 이후 참여한 경험'으로 참여경험 유무를 질문하였고,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에는 '지난 1년간 참여한 경험'으로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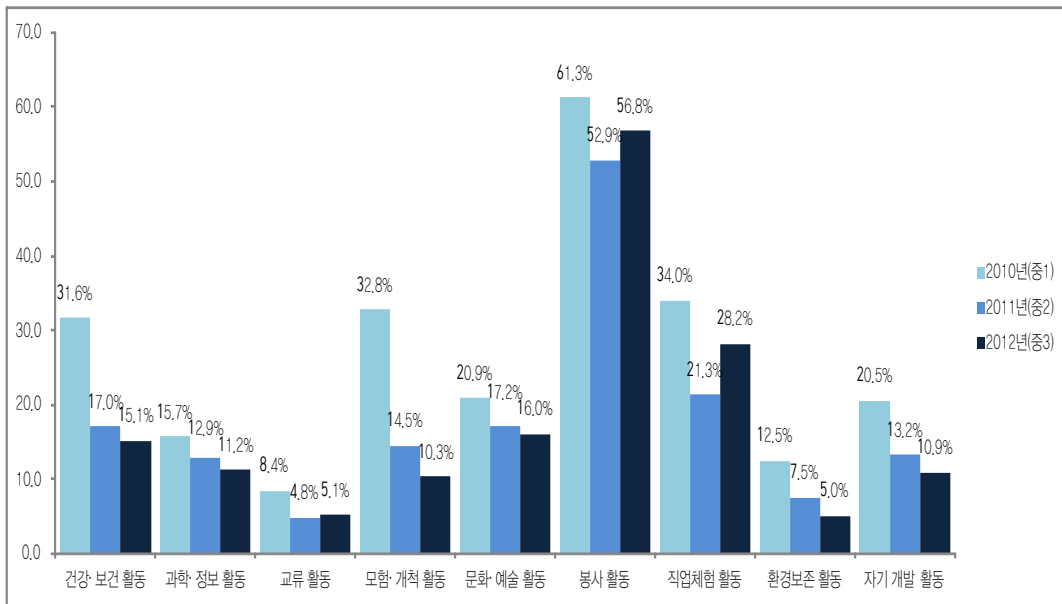
표 II-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건강·보건 활동	31.6	17.0	15.1
과학·정보 활동	15.7	12.9	11.2
교류 활동	8.4	4.8	5.1
모험·개척 활동	32.8	14.5	10.3
문화·예술 활동	20.9	17.2	16.0
봉사 활동	61.3	52.9	56.8
직업체험 활동	34.0	21.3	28.2
환경보존 활동	12.5	7.5	5.0
자기 개발 활동	20.5	13.2	10.9

분석 결과, 9개 체험활동 영역 중 건강·보건 활동(31.6% → 17.0% → 15.1%), 과학·정보 활동(15.7% → 12.9% → 11.2%), 모험·개척 활동(32.8% → 14.5% → 10.3%), 문화·예술 활동(20.9% → 17.2% → 16.0%), 환경보존 활동(12.5% → 7.5% → 5.0%), 자기 개발 활동(20.5% → 13.2% → 10.9%)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표 II-1>, [그림 II-1].

다만, 봉사 활동(61.3% → 52.9% → 56.8%)과 직업체험 활동(34.0% → 21.3% → 28.2%)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참여율이 감소했다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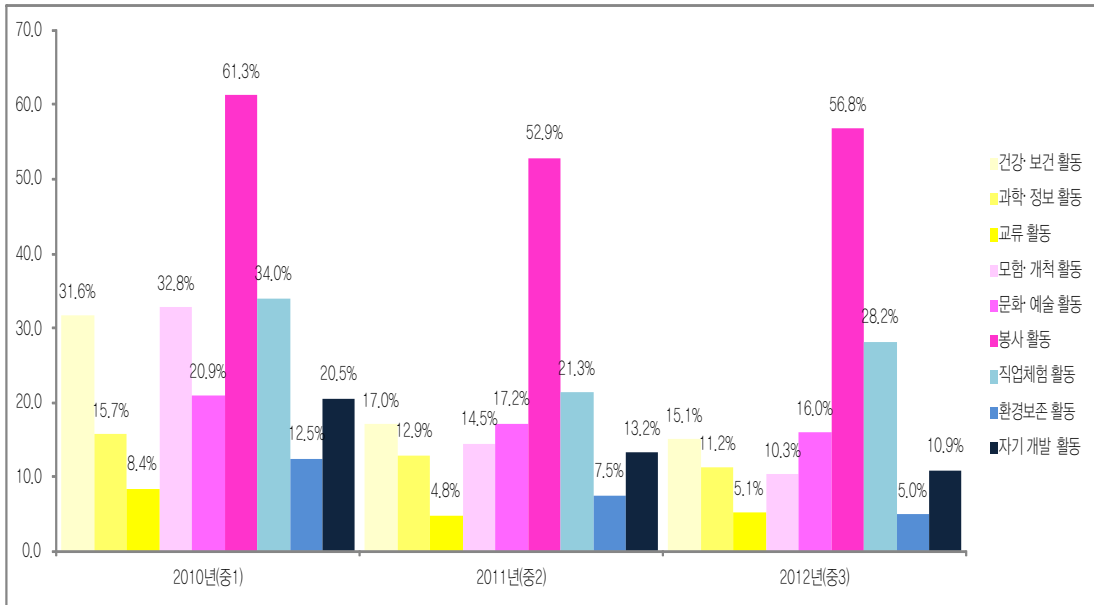


【그림 II-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율 변화

위와 같이 봉사 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속되는 것은 중학생의 봉사 활동 참여 의무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진로활동 참여율이 3학년 시기에 높아진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진로지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모험·개척 활동의 참여율이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1 패널의 학년별 체험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봉사 활동, 모험·개척 활동, 건강·보건 활동, 직업체험 활동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에는 봉사 활동과 직업체험 활동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봉사 활동(56.8%), 직업체험 활동(28.2%), 문화·예술 활동(16.0%), 건강·보건 활동(15.1%) 이외에는 15% 이하의 참여율을 보였다[그림 II-2].



【그림 II-2】 학년별 체험활동 참여율 변화

(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율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체험활동 영역별 성별 참여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 활동(남자 33.9% → 18.8% → 16.1%, 여자 29.1% → 15.1% → 14.0%)과 과학·정보 활동(남자 18.3% → 14.3% → 13.0%, 여자 12.9% → 11.5% → 9.3%)은 남자 청소년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2>.

반면 그 외에 교류 활동(남자 8.3% → 3.9% → 4.2%, 여자 8.5% → 5.8% → 6.2%), 모험·개척 활동(남자 32.4% → 12.5% → 9.8%, 여자 33.2% → 16.5% → 11.0%), 문화·예술 활동(남자 16.9% → 16.6% → 14.7%, 여자 25.3% → 17.8% → 17.4%), 봉사 활동(남자 57.0% → 51.6% → 56.7%, 여자 65.8% → 54.2% → 56.9%), 직업체험 활동(남자 29.4% → 17.8% → 23.8%, 여자 38.8% → 25.2% → 33.0%), 자기 개발 활동(남자 16.9% → 12.2% → 10.4%, 여자 24.3% → 14.3% → 11.4%)은 여자 청소년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성별			
건강·보건 활동	남자	33.9	18.8	16.1
	여자	29.1	15.1	14.0
과학·정보 활동	남자	18.3	14.3	13.0
	여자	12.9	11.5	9.3
교류 활동	남자	8.3	3.9	4.2
	여자	8.5	5.8	6.2
모험·개척 활동	남자	32.4	12.5	9.8
	여자	33.2	16.5	11.0
문화·예술 활동	남자	16.9	16.6	14.7
	여자	25.3	17.8	17.4
봉사 활동	남자	57.0	51.6	56.7
	여자	65.8	54.2	56.9
직업체험 활동	남자	29.4	17.8	23.8
	여자	38.8	25.2	33.0
환경보존 활동	남자	12.3	8.2	4.8
	여자	12.7	6.6	5.3
자기 개발 활동	남자	16.9	12.2	10.4
	여자	24.3	14.3	11.4

(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율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체험활동 영역별 도시규모별 참여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 활동(서울 41.2% → 16.5% → 18.9%, 광역시 30.2% → 18.2% → 14.2%, 시군구 29.3% → 16.9% → 14.0%)과 과학·정보 활동(서울 21.4% → 14.1% → 14.7%, 광역시 15.2% → 15.2% → 11.5%, 시군구 14.1% → 11.6% → 10.2%)은 도시규모가 클수록 체험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험·개척 활동(서울 21.8% → 11.4% → 8.0%, 광역시 34.3% → 13.7% → 10.7%, 시군구 35.5% → 15.9% → 11.2%)은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체험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

표 II-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도시규모			
건강보건 활동	서울	41.2	16.5	18.9
	광역시	30.2	18.2	14.2
	시군구	29.3	16.9	14.0
과학·정보 활동	서울	21.4	14.1	14.7
	광역시	15.2	15.2	11.5
	시군구	14.1	11.6	10.2
교류 활동	서울	10.3	4.5	4.7
	광역시	7.2	4.4	4.4
	시군구	8.4	5.0	5.5
모험·개척 활동	서울	21.8	11.4	8.0
	광역시	34.3	13.7	10.7
	시군구	35.5	15.9	11.2
문화·예술 활동	서울	23.5	13.8	22.3
	광역시	20.4	18.2	16.2
	시군구	20.3	17.9	14.2
봉사 활동	서울	71.5	65.4	69.8
	광역시	54.0	46.5	48.7
	시군구	61.6	52.6	56.8
직업체험 활동	서울	44.1	22.3	35.2
	광역시	34.1	22.6	28.9
	시군구	30.8	20.1	25.9
환경보존 활동	서울	20.8	12.3	6.3
	광역시	11.3	5.4	4.9
	시군구	10.5	6.9	4.2
자기 개발 활동	서울	28.7	20.2	17.2
	광역시	18.5	11.0	9.3
	시군구	18.9	12.0	9.3

(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율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체험활동 영역별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자기 개발 활동(저소득 집단 17.8% → 11.0% → 8.4%, 중간소득 집단 20.4% → 14.3% → 11.5%,

고소득 집단 24.1% → 1.9% → 12.8%)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 영역에서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체험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

표 II-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가구 소득수준			
건강보건 활동	저	30.0	15.8	16.3
	중	30.8	16.5	14.2
	고	34.8	19.2	16.4
과학·정보 활동	저	10.6	9.8	9.6
	중	15.9	12.5	10.9
	고	22.6	18.7	16.4
교류 활동	저	6.9	3.6	4.5
	중	8.3	4.8	4.8
	고	11.2	5.6	7.8
모험·개척 활동	저	31.2	12.2	9.3
	중	32.9	14.4	10.0
	고	33.5	19.0	12.5
문화·예술 활동	저	19.3	14.7	15.1
	중	20.3	17.4	14.7
	고	26.4	19.2	21.2
봉사 활동	저	55.0	48.2	50.2
	중	61.7	53.2	57.0
	고	66.3	59.2	64.7
직업체험 활동	저	31.4	17.7	29.4
	중	34.6	21.9	27.3
	고	35.1	23.8	30.0
환경보존 활동	저	11.7	4.6	4.1
	중	11.2	7.6	5.0
	고	18.9	9.6	6.5
자기 개발 활동	저	17.8	11.0	8.4
	중	20.4	14.3	11.5
	고	24.1	11.9	12.8

2)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시간 변화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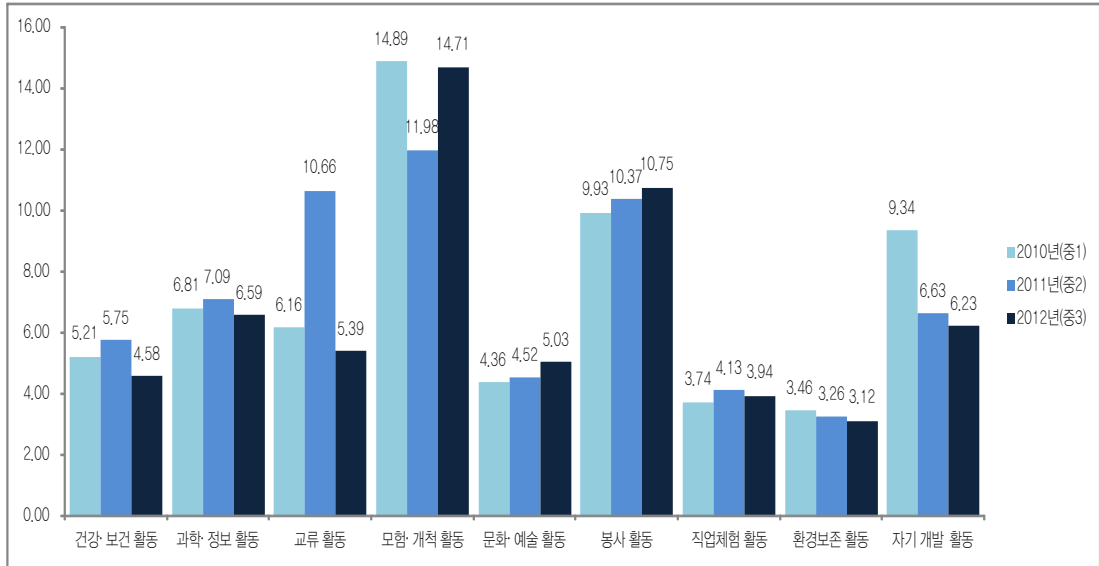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시기에서 2학년 시기에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높아졌다가 3학년 시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봉사 활동(9.93시간 → 10.37시간 → 10.75시간)은 3년간 계속해서 참여시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체험활동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험·개척 활동(14.89시간 → 11.98시간 → 14.71시간)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참여시간이 감소한 후 3학년 시기에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교 단체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 활동(24.36시간 → 4.52시간 → 5.03시간)과 환경보존 활동(3.46시간 → 3.26시간 → 3.12시간)은 3년간 참여시간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그림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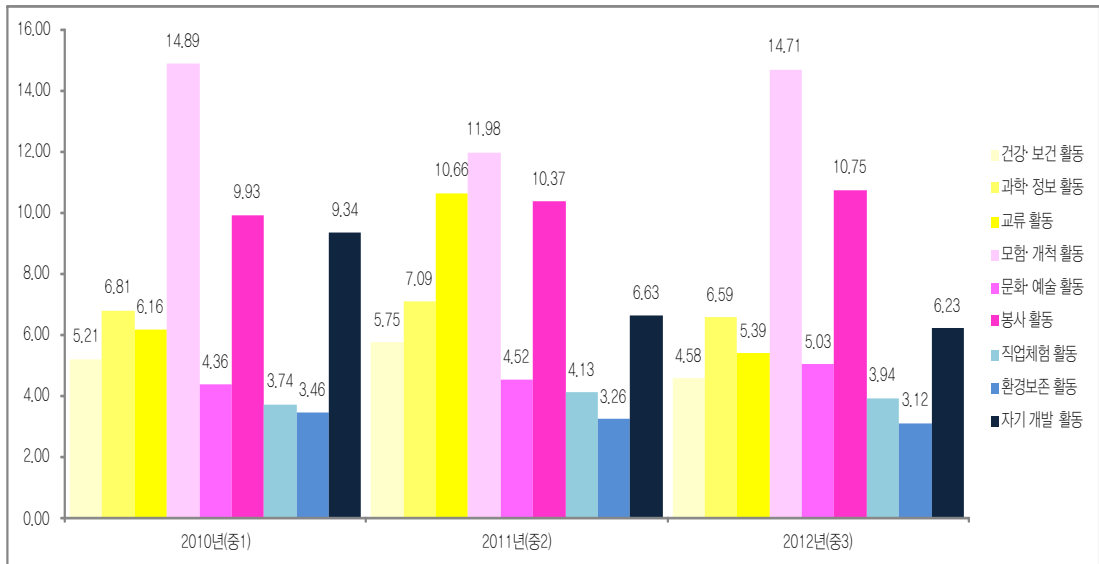
표 II-5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732	5.21	7.647	378	5.75	11.214	328	4.58	7.291
과학·정보 활동	359	6.81	10.940	284	7.09	11.172	242	6.59	11.865
교류 활동	192	6.16	11.232	99	10.66	18.299	102	5.39	7.992
모험·개척 활동	753	14.89	13.052	312	11.98	15.422	217	14.71	16.708
문화·예술 활동	484	4.36	6.035	384	4.52	7.577	344	5.03	6.934
봉사 활동	1426	9.93	9.934	1193	10.37	10.668	1257	10.75	9.861
직업체험 활동	791	3.74	5.324	479	4.13	5.148	619	3.94	4.186
환경보존 활동	288	3.46	5.802	168	3.26	3.240	107	3.12	3.707
자기 개발 활동	474	9.34	11.184	298	6.63	11.475	236	6.23	8.640



【그림 II-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시간 변화



【그림 II-4】 학년별 체험활동 참여시간 변화

(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시간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체험활동 영역별 성별 참여시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 활동(남자 6.03시간 → 6.77시간 → 5.25시간, 여자 4.19시간 → 4.41시간 → 3.72시간)과 환경보존

활동(남자 3.96시간 → 3.48시간 → 3.5시간, 여자 2.96시간 → 2.95시간 → 2.73시간)은 남자 청소년의 참여시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6>.

표 II-6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영역	성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남자	406	6.03	8.359	214	6.77	12.745	185	5.25	8.204
	여자	326	4.19	6.526	163	4.41	8.669	143	3.72	5.818
	소계	732	5.21	7.647	378	5.75	11.214	328	4.58	7.291
과학·정보 활동	남자	214	7.46	11.911	161	6.45	10.349	148	7.52	13.044
	여자	145	5.85	9.284	123	7.93	12.159	94	5.11	9.589
	소계	359	6.81	10.94	284	7.09	11.172	242	6.59	11.865
교류 활동	남자	99	6.26	11.671	43	7.66	14.454	45	6.57	9.571
	여자	93	6.04	10.808	55	13.02	20.663	56	4.44	6.384
	소계	192	6.16	11.232	99	10.66	18.299	102	5.39	7.992
모험·개척 활동	남자	380	13.77	12.096	142	12.01	17.303	106	13.34	16.582
	여자	374	16.02	13.881	171	11.96	13.722	111	16.02	16.798
	소계	753	14.89	13.052	312	11.98	15.422	217	14.71	16.708
문화·예술 활동	남자	203	3.76	4.276	195	4.63	7.16	164	4.79	5.79
	여자	281	4.79	7.015	189	4.41	8.003	180	5.24	7.844
	소계	484	4.36	6.035	384	4.52	7.577	344	5.03	6.934
봉사 활동	남자	685	9.84	10.488	605	10.42	9.454	660	11.32	10.497
	여자	740	10	9.399	588	10.32	11.794	597	10.12	9.076
	소계	1426	9.93	9.934	1193	10.37	10.668	1257	10.75	9.861
직업체험 활동	남자	353	3.74	5.052	205	3.93	4.728	274	4.05	4.641
	여자	438	3.75	5.54	273	4.27	5.447	345	3.86	3.792
	소계	791	3.74	5.324	479	4.13	5.148	619	3.94	4.186
환경보존 활동	남자	145	3.96	6.873	96	3.48	2.924	55	3.5	4.735
	여자	143	2.96	4.428	71	2.95	3.623	52	2.73	2.153
	소계	288	3.46	5.802	168	3.26	3.24	107	3.12	3.707
자기 개발 활동	남자	201	8.28	11.657	142	6.68	11.983	119	4.7	5.771
	여자	273	10.12	10.778	155	6.59	11.027	117	7.79	10.618
	소계	474	9.34	11.184	298	6.63	11.475	236	6.23	8.64

(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시간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체험활동 영역별 도시규모별 참여시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환경보존 활동(서울 2.92시간 → 2.76시간 → 2.75시간, 광역시 2.92시간 → 2.65시간 → 2.91시간, 시군구 4.06시간 → 3.83시간 → 3.67시간)은 시군구 지역의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과학·정보 활동(서울 5.94시간 → 9.45시간 → 9.94시간, 광역시 5.39시간 → 5.55시간 → 5.78시간, 시군구 7.92시간 → 7.44시간 → 5.82시간)의 경우 광역시 지역이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였고, 봉사 활동(서울 8.32시간 → 8.39시간 → 9시간, 광역시 8.79시간 → 10.01시간 → 12.22시간, 시군구 10.98시간 → 11.39시간 → 10.59시간)은 서울 지역이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였다. 또한 자기 개발 활동(서울 12.05시간 → 6.51시간 → 7.37시간, 광역시 10.95시간 → 8.07시간 → 7.69시간, 시군구 7.26시간 → 6.24시간 → 5.15시간)은 시군구 지역이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였다<표 II-7>.

표 II-7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영역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도시 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건강·보건 활동	서울	166	4.59	8.152	62	8.06	16.578	68	4.62	4.853
	광역시	185	7.66	8.985	105	6.4	12.092	81	3.75	5.987
	시군구	382	4.29	6.374	197	4.88	8.645	162	5.27	8.863
	소계	732	5.21	7.647	365	5.86	11.395	311	4.73	7.451
과학·정보 활동	서울	86	5.94	7.393	53	9.45	13.19	53	9.94	16.887
	광역시	90	5.39	7.477	86	5.55	7.885	66	5.78	8.603
	시군구	183	7.92	13.415	133	7.44	12.337	116	5.82	10.854
	소계	359	6.81	10.94	273	7.24	11.356	235	6.73	12.023
교류 활동	서울	42	3.17	2.489	17	16.94	26.954	15	3.67	2.172
	광역시	42	8.12	11.164	24	8.31	12.267	21	6.51	8.124
	시군구	109	6.54	13.001	51	10.84	18.078	58	5.99	9.187
	소계	192	6.16	11.232	92	11.31	18.807	95	5.73	8.198
모험·개척 활동	서울	83	8.89	10.274	43	12.18	14.281	21	7.23	5.638
	광역시	212	14.41	13.907	79	13.08	17.244	59	18.75	20.456
	시군구	458	16.19	12.797	177	11.45	14.888	132	13.99	15.411
	소계	753	14.89	13.052	299	11.99	15.428	212	14.63	16.603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도시 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문화·예술 활동	서울	96	2.97	2.218	52	4.24	5.32	78	3.94	4.202
	광역시	128	4.36	4.803	106	4.73	9.389	93	5.16	7.258
	시군구	260	4.87	7.334	210	4.6	7.267	162	5.16	7.715
	소계	484	4.36	6.035	368	4.59	7.698	334	4.88	6.916
봉사 활동	서울	288	8.32	6.987	246	8.39	6.512	251	9	8.177
	광역시	338	8.79	8.439	274	10.01	10.369	285	12.22	11.472
	시군구	800	10.98	11.218	627	11.39	12.064	672	10.59	9.381
	소계	1426	9.93	9.934	1147	10.42	10.754	1208	10.64	9.74
직업체험 활동	서울	180	2.85	2.406	84	4.99	5.842	122	3.97	3.694
	광역시	213	3.62	3.495	134	3.22	3.043	165	3.71	4.004
	시군구	398	4.22	6.832	237	4.51	5.927	309	4.15	4.562
	소계	791	3.74	5.324	454	4.22	5.26	596	3.99	4.243
환경보존 활동	서울	83	2.92	3.642	46	2.76	1.626	23	2.75	1.925
	광역시	69	2.92	4.668	31	2.65	1.324	26	2.91	2.101
	시군구	137	4.06	7.188	82	3.83	4.298	47	3.67	5.129
	소계	288	3.46	5.802	159	3.29	3.298	97	3.24	3.859
자기 개발 활동	서울	117	12.05	11.785	76	6.51	11.518	59	7.37	9.193
	광역시	115	10.95	11.04	63	8.07	15.792	52	7.69	11.519
	시군구	242	7.26	10.574	144	6.24	9.59	108	5.15	6.62
	소계	474	9.34	11.184	284	6.72	11.72	219	6.35	8.739

(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시간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체험활동 영역별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시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과학정보 활동(저 4.31시간 → 4.72시간 → 6.55시간, 중 6.23시간 → 6.55시간 → 6.45시간, 고 9.53시간 → 10.08시간 → 7.23시간), 교류 활동(저 3.86시간 → 11.74시간 → 3.65시간, 중 7.42시간 → 8.01시간 → 5.46시간, 고 4.87시간 → 20.2시간 → 6.52시간), 문화예술 활동(저 5.79시간 → 3.86시간 → 4.57시간, 중 4.21시간 → 4.8시간 → 5.66시간, 고 3.7시간 → 4.64시간 → 4.38시간)은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건 활동(저 4.06시간 → 4.66시간 → 4.27시간, 중 5.75시간 → 5.63시간 → 5.02시간, 고 4.03시간 → 5.33시간 → 4.46시간)은 가구 소득수준이 중간인 집단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시간이 높게 나타났다<표 II-8>.

표 II-8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소득 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건강·보건 활동	저	131	4.06	5.739	59	4.66	9.587	66	4.27	7.063
	중	415	5.75	8.517	220	5.63	11.451	181	5.02	7.977
	고	138	4.03	4.932	75	5.33	8.028	62	4.46	6.406
	소계	684	5.08	7.47	354	5.41	10.492	309	4.74	7.481
과학·정보 활동	저	45	4.31	4.664	41	4.72	6.572	40	6.55	13.032
	중	213	6.23	10.397	161	6.55	9.308	141	6.45	12.174
	고	87	9.53	13.802	69	10.08	16.019	57	7.23	10.809
	소계	345	6.82	10.952	270	7.17	11.204	237	6.65	11.965
교류 활동	저	30	3.86	5.556	11	11.74	19.821	17	3.65	3.815
	중	112	7.42	12.84	60	8.01	13.492	54	5.46	8.715
	고	42	4.87	10.467	20	20.2	28.55	29	6.52	8.585
	소계	183	6.25	11.474	91	11.12	18.942	100	5.45	8.036
모험·개척 활동	저	134	16.36	15.549	45	11.85	13.124	38	16.22	18.439
	중	445	15.22	12.205	188	12.27	16.632	126	16.08	17.846
	고	127	12.05	10.587	69	11.28	13.466	43	8.96	10.04
	소계	706	14.87	12.705	303	11.98	15.431	208	14.62	16.829
문화·예술 활동	저	82	5.79	9.891	57	3.86	3.65	62	4.57	7.358
	중	276	4.21	4.965	230	4.8	9.173	187	5.66	7.751
	고	103	3.7	4.775	76	4.64	4.859	75	4.38	4.959
	소계	461	4.38	6.128	363	4.62	7.769	323	5.15	7.129
봉사 활동	저	239	9.64	10.631	200	8.17	6.944	209	10.62	10.645
	중	843	9.85	9.392	707	11.04	11.667	740	10.62	9.746
	고	261	10.48	11.073	228	10.31	9.779	244	11.36	9.187
	소계	1343	9.94	9.961	1135	10.39	10.652	1193	10.77	9.795
직업체험 활동	저	135	3.67	5.809	71	5.23	7.248	122	3.84	3.789
	중	473	3.8	5.261	293	3.66	3.936	347	3.8	3.666
	고	140	3.65	4.826	90	4.83	6.537	114	4.71	6.076
	소계	748	3.75	5.28	454	4.14	5.192	583	3.99	4.274
환경보존 활동	저	51	2.4	2.064	19	5.85	6.433	17	2.25	1.809
	중	151	4.15	6.953	100	3.08	2.753	61	3.59	4.622
	고	74	3.02	5.289	38	2.62	1.344	25	2.89	1.851
	소계	275	3.52	5.924	157	3.31	3.321	103	3.2	3.76
자기개발 활동	저	74	7.95	11.778	46	4.99	5.002	32	5.44	6.367
	중	277	9.97	11.235	189	6.98	12.077	146	6.86	9.339
	고	97	8.54	9.961	45	7.41	14.261	49	5.61	8.377
	소계	448	9.32	11.074	280	6.73	11.628	227	6.39	8.765

반면, 모험·개척 활동(저 16.36시간 → 11.85시간 → 16.22시간, 중 15.22시간 → 12.27시간 → 16.08시간, 고 12.05시간 → 11.28시간 → 8.96시간)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낮은 참여시간을 보였고, 봉사 활동(저 9.64시간 → 8.17시간 → 10.62시간, 중 9.85시간 → 11.04시간 → 10.62시간, 고 10.48시간 → 10.31시간 → 11.36시간)과 자기 개발 활동(저 7.95시간 → 4.99시간 → 5.44시간, 중 9.97시간 → 6.98시간 → 6.86시간, 고 8.54시간 → 7.41시간 → 5.61시간)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참여시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 만족도 변화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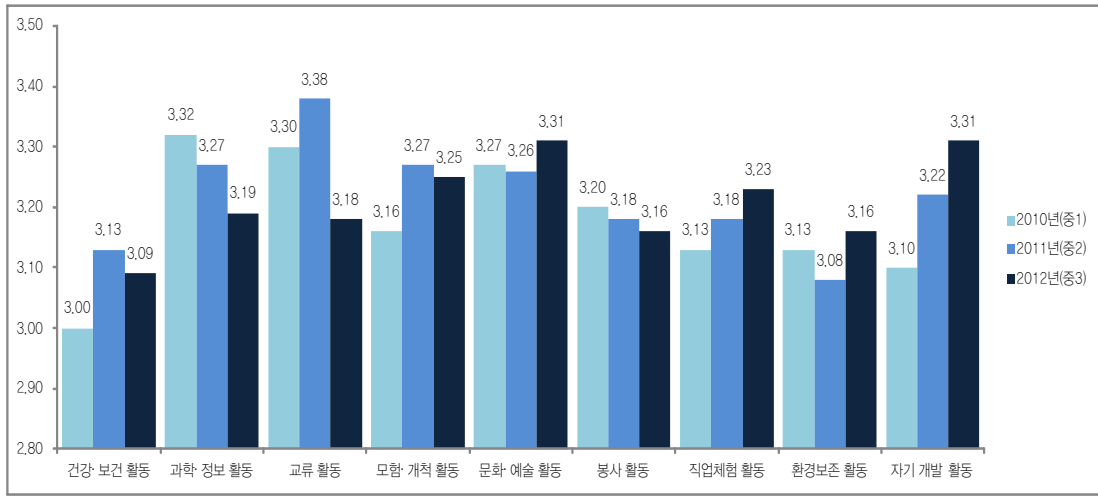
체험활동 영역별로 중학교 1학년(2010년), 중학교 2학년(2011년), 중학교 3학년(2012년)의 참여 만족도를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직업체험 활동(3.13 → 3.18 → 3.23)과 자기 개발 활동(3.10 → 3.22 → 3.31)은 3년간 계속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강·보건 활동(3.00 → 3.13 → 3.09), 교류 활동(3.30 → 3.38 → 3.18), 모험·개척 활동(3.16 → 3.27 → 3.25)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만족도가 높아졌다가 3학년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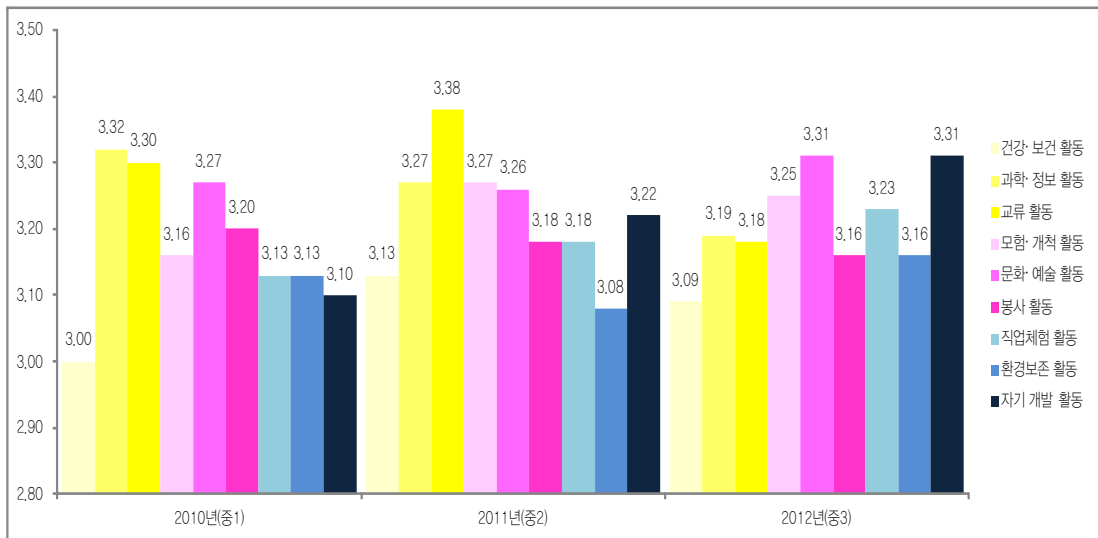
표 II-9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741	3.00	0.684	387	3.13	0.661	336	3.09	0.678
과학·정보 활동	367	3.32	0.662	292	3.27	0.642	246	3.19	0.710
교류 활동	195	3.30	0.683	108	3.38	0.629	109	3.18	0.684
모험·개척 활동	759	3.16	0.766	326	3.27	0.658	224	3.25	0.686
문화·예술 활동	484	3.27	0.678	390	3.26	0.621	346	3.31	0.621
봉사 활동	1420	3.20	0.690	1200	3.18	0.652	1224	3.16	0.653
직업체험 활동	793	3.13	0.722	483	3.18	0.650	596	3.23	0.687
환경보존 활동	283	3.13	0.714	170	3.08	0.730	110	3.16	0.648
자기 개발 활동	473	3.10	0.740	301	3.22	0.679	234	3.31	0.657

반면에 문화·예술 활동(3.27 → 3.26 → 3.31), 환경보존 활동(3.13 → 3.08 → 3.16)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만족도가 낮아졌다가 3학년 시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정보 활동(3.32 → 3.27 → 3.19)과 봉사 활동(3.20 → 3.18 → 3.16)은 3년간 계속해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5].



【그림 II-5】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그림 II-6】 학년별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 만족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과학·정보 활동(남자 3.34 → 3.29 → 3.2, 여자 3.3 → 3.24 → 3.16)과 모험·개척 활동(남자 3.21 → 3.34 → 3.29, 여자 3.1 → 3.21 → 3.21)은 남자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문화·예술 활동(남자 3.23 → 3.19 → 3.24, 여자 3.3 → 3.33 → 3.37)과 봉사 활동(남자 3.17 → 3.13 → 3.11, 여자 3.23 → 3.24 → 3.21)은 여자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10>.

표 II-10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 만족도 변화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성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남자	409	3.04	0.749	223	3.22	0.675	188	3.08	0.685
	여자	331	2.94	0.591	165	3.01	0.622	148	3.09	0.67
	소계	741	3	0.684	387	3.13	0.661	336	3.09	0.678
과학·정보 활동	남자	221	3.34	0.706	169	3.29	0.645	152	3.2	0.816
	여자	146	3.3	0.59	123	3.24	0.639	94	3.16	0.498
	소계	367	3.32	0.662	292	3.27	0.642	246	3.19	0.71
교류 활동	남자	99	3.34	0.708	46	3.27	0.696	48	3.16	0.71
	여자	96	3.26	0.657	62	3.46	0.567	61	3.19	0.669
	소계	195	3.3	0.683	108	3.38	0.629	109	3.18	0.684
모험·개척 활동	남자	388	3.21	0.781	148	3.34	0.672	111	3.29	0.69
	여자	371	3.1	0.745	178	3.21	0.642	113	3.21	0.683
	소계	759	3.16	0.766	326	3.27	0.658	224	3.25	0.686
문화·예술 활동	남자	201	3.23	0.733	197	3.19	0.681	165	3.24	0.658
	여자	282	3.3	0.635	193	3.33	0.548	181	3.37	0.579
	소계	484	3.27	0.678	390	3.26	0.621	346	3.31	0.621
봉사 활동	남자	682	3.17	0.728	608	3.13	0.656	634	3.11	0.669
	여자	737	3.23	0.652	592	3.24	0.644	590	3.21	0.633
	소계	1420	3.2	0.69	1200	3.18	0.652	1224	3.16	0.653
직업체험 활동	남자	353	3.16	0.718	210	3.23	0.667	264	3.19	0.776
	여자	440	3.1	0.725	273	3.14	0.635	332	3.26	0.606
	소계	793	3.13	0.722	483	3.18	0.65	596	3.23	0.687
환경보존 활동	남자	142	3.18	0.781	97	3.03	0.696	54	3.19	0.626
	여자	140	3.07	0.638	72	3.14	0.774	56	3.13	0.673
	소계	283	3.13	0.714	170	3.08	0.73	110	3.16	0.648
자기개발 활동	남자	200	3.11	0.767	144	3.22	0.693	115	3.23	0.69
	여자	274	3.08	0.72	157	3.23	0.668	119	3.39	0.615
	소계	473	3.1	0.74	301	3.22	0.679	234	3.31	0.657

(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 만족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모험·개척활동(서울 3.44 → 3.3 → 3.44, 광역시 3.18 → 3.23 → 3.21, 시군구 3.09 → 3.3 → 3.24)은 서울 지역에서 3년간 꾸준히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I-11>.

표 II-1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 만족도 변화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도시 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서울	168	3.02	0.726	62	3.26	0.63	69	2.95	0.743
	광역시	189	3.02	0.696	108	3.08	0.709	80	3.19	0.69
	시군구	384	2.97	0.661	204	3.12	0.644	169	3.1	0.67
	소계	741	3	0.684	373	3.13	0.662	318	3.09	0.694
과학·정보 활동	서울	87	3.41	0.725	51	3.51	0.505	54	3.1	0.95
	광역시	95	3.24	0.62	90	3.23	0.663	66	3.33	0.562
	시군구	185	3.32	0.65	141	3.23	0.662	119	3.16	0.673
	소계	367	3.32	0.662	281	3.28	0.644	238	3.19	0.721
교류 활동	서울	42	3.4	0.637	17	3.29	0.467	14	3.25	0.452
	광역시	44	3.28	0.691	26	3.32	0.656	24	3.14	0.785
	시군구	110	3.27	0.699	60	3.45	0.674	64	3.23	0.643
	소계	195	3.3	0.683	103	3.39	0.638	102	3.21	0.652
모험·개척 활동	서울	89	3.44	0.635	41	3.3	0.608	28	3.44	0.505
	광역시	211	3.18	0.694	81	3.23	0.68	62	3.21	0.713
	시군구	459	3.09	0.807	192	3.3	0.667	130	3.24	0.715
	소계	759	3.16	0.766	315	3.28	0.661	219	3.26	0.692
문화·예술 활동	서울	96	3.21	0.757	52	3.43	0.5	75	3.22	0.563
	광역시	128	3.24	0.697	108	3.2	0.682	95	3.35	0.562
	시군구	260	3.31	0.637	216	3.25	0.623	166	3.32	0.666
	소계	484	3.27	0.678	376	3.26	0.628	336	3.31	0.616
봉사 활동	서울	291	3.14	0.763	244	3.25	0.661	242	3.12	0.64
	광역시	334	3.2	0.694	274	3.15	0.626	276	3.22	0.645
	시군구	795	3.22	0.66	636	3.17	0.672	660	3.14	0.669
	소계	1420	3.2	0.69	1154	3.18	0.659	1178	3.15	0.659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도시 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직업체험 활동	서울	180	3.15	0.791	82	3.14	0.552	119	3.15	0.796
	광역시	213	3.06	0.753	134	3.1	0.713	160	3.32	0.626
	시군구	400	3.15	0.669	243	3.24	0.66	296	3.21	0.669
	소계	793	3.13	0.722	459	3.18	0.66	575	3.23	0.687
환경보존 활동	서울	85	3.07	0.787	46	2.96	0.763	23	3.45	0.508
	광역시	70	2.99	0.711	32	3.25	0.481	29	3.04	0.517
	시군구	128	3.24	0.651	83	3.09	0.798	48	3.12	0.752
	소계	283	3.13	0.714	162	3.09	0.738	100	3.17	0.653
자기 개발 활동	서울	117	2.99	0.693	76	3.32	0.676	61	3.22	0.643
	광역시	113	3.08	0.719	65	3.25	0.63	53	3.37	0.649
	시군구	244	3.15	0.768	145	3.19	0.704	102	3.45	0.623
	소계	473	3.1	0.74	286	3.24	0.68	217	3.37	0.639

(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 만족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과학·정보 활동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시기(고 3.41, 저 3.35, 중 3.29)에는 고소득, 저소득, 중간소득 집단 순으로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저 3.32, 중 3.30, 고 3.26)과 3학년 시기(저 3.36, 중 3.25, 고 2.93)에는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집단 순으로 체험활동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I-12>.

건강·보건 활동은 중학교 1학년 시기(저 3.07, 중 2.97, 고 2.94)에는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집단 순으로 체험활동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 시기(고 3.23, 중 3.15, 저 3.07)에는 고소득, 중간소득, 저소득 집단 순으로,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시기(중 3.14, 저 3.12, 고 2.94)에는 중간소득, 저소득, 고소득 집단 순으로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1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참여 만족도 변화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영역	가구 소득수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저	129	3.07	0.679	66	3.07	0.746	67	3.12	0.6
	중	423	2.97	0.662	221	3.15	0.607	186	3.14	0.625
	고	140	2.94	0.769	76	3.23	0.679	63	2.94	0.887
	소계	692	2.98	0.689	363	3.15	0.65	315	3.09	0.683
과학·정보 활동	저	45	3.35	0.613	41	3.32	0.495	38	3.36	0.517
	중	218	3.29	0.658	167	3.3	0.66	142	3.25	0.663
	고	91	3.41	0.681	71	3.26	0.628	62	2.93	0.859
	소계	353	3.33	0.659	279	3.29	0.628	242	3.18	0.713
교류 활동	저	28	3.2	0.75	15	3.46	0.638	17	2.99	0.828
	중	113	3.32	0.649	62	3.39	0.697	62	3.18	0.676
	고	45	3.29	0.751	22	3.4	0.502	27	3.23	0.6
	소계	186	3.29	0.687	100	3.4	0.644	106	3.16	0.683
모험·개척 활동	저	133	3.18	0.747	51	3.09	0.719	39	3.23	0.628
	중	446	3.12	0.816	192	3.28	0.663	127	3.21	0.706
	고	132	3.17	0.648	74	3.38	0.606	44	3.35	0.544
	소계	712	3.14	0.774	317	3.27	0.664	209	3.24	0.661
문화·예술 활동	저	80	3.33	0.678	61	3.18	0.576	62	3.34	0.601
	중	275	3.29	0.634	232	3.33	0.618	190	3.37	0.585
	고	105	3.19	0.759	76	3.18	0.634	73	3.2	0.675
	소계	461	3.27	0.673	369	3.27	0.617	325	3.33	0.611
봉사 활동	저	236	3.21	0.704	201	3.15	0.634	201	3.2	0.613
	중	839	3.2	0.69	709	3.18	0.654	729	3.15	0.649
	고	260	3.18	0.684	233	3.25	0.696	236	3.15	0.7
	소계	1336	3.2	0.691	1143	3.19	0.659	1166	3.16	0.653
직업체험 활동	저	135	3.09	0.724	74	3.25	0.616	116	3.19	0.649
	중	473	3.16	0.727	293	3.21	0.644	336	3.24	0.647
	고	141	3.07	0.687	92	3.01	0.694	110	3.17	0.864
	소계	749	3.13	0.719	459	3.17	0.654	562	3.22	0.694
환경보존 활동	저	48	2.91	0.769	19	3.16	0.522	17	3.3	0.7
	중	149	3.16	0.661	102	3.01	0.827	66	3.28	0.505
	고	72	3.21	0.742	38	3.19	0.612	23	2.77	0.866
	소계	270	3.13	0.709	159	3.07	0.75	106	3.17	0.66
자기 개발 활동	저	74	3.05	0.809	46	3.18	0.571	31	3.47	0.507
	중	277	3.13	0.711	191	3.24	0.644	146	3.32	0.68
	고	96	3.05	0.729	47	3.28	0.855	49	3.19	0.64
	소계	448	3.1	0.731	283	3.24	0.671	226	3.31	0.653

4)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 희망 변화

(1)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 희망 정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로 조사 대상 청소년의 2010년(중학교 1학년), 2011년(중학교 2학년), 2012년(중학교 3학년)의 체험활동 참여희망을 정도를 매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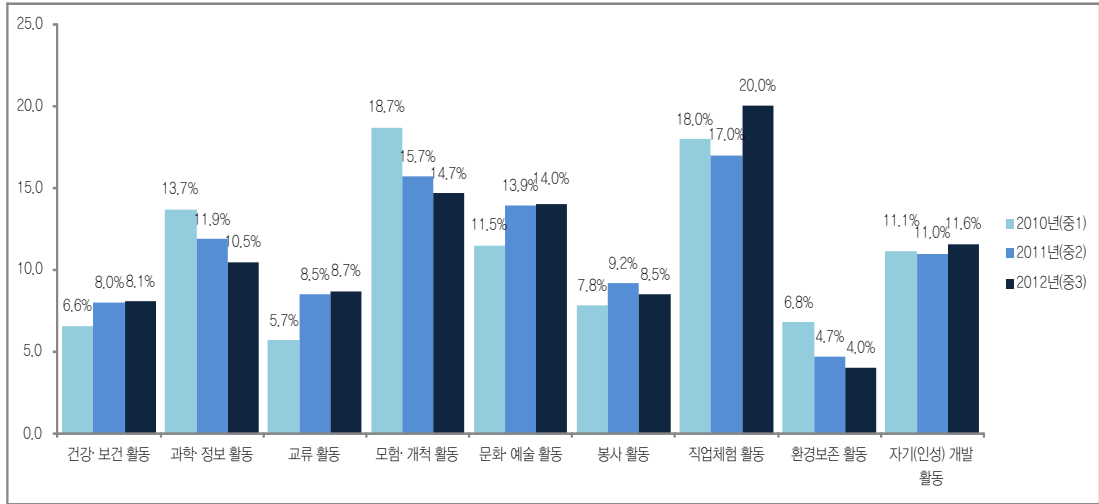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중복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직업체험 활동(18.0% → 17.0% → 20.0%)과 모험·개척활동(18.7% → 15.7% → 14.7%)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류 활동(25.7% → 8.5% → 8.7%)과 환경보존 활동(6.8% → 4.7% → 4.0%)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II-13>.

표 II-1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희망 정도 변화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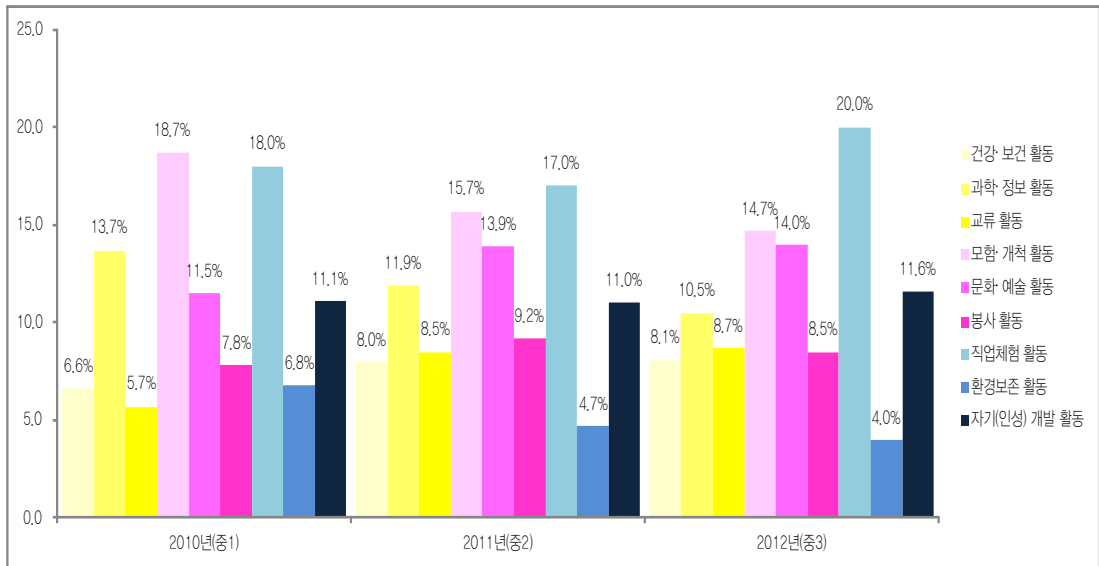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건강·보건 활동	438	6.6	531	8.0	533	8.1
과학·정보 활동	905	13.7	787	11.9	693	10.5
교류 활동	379	5.7	559	8.5	572	8.7
모험·개척 활동	1,241	18.7	1,039	15.7	973	14.7
문화·예술 활동	763	11.5	917	13.9	926	14.0
봉사 활동	515	7.8	610	9.2	565	8.5
직업체험 활동	1,192	18.0	1,123	17.0	1,320	20.0
환경보존 활동	453	6.8	310	4.7	262	4.0
자기(인성) 개발 활동	736	11.1	729	11.0	767	11.6
합계	6,622	100.0	6,605	100.0	6,611	100.0

중학교 3년간 희망 체험활동 영역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학·정보 활동, 모험·개척 활동, 환경보존 활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건강·보건 활동이나 교류 활동, 문화예술 활동, 직업체험 활동 등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II-7].



【그림 II-7】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희망 체험활동 변화

중학교 3년간 학년별로 체험활동 영역별 희망 체험활동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모험·개척 활동(1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에는 직업체험 활동(중학교 2학년 17.0%, 중학교 3학년 2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II-8].



【그림 II-8】 학년별 희망 체험활동 변화

(2) 참여 희망 1순위 체험활동 영역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 희망 1순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모험·개척활동(29.5%), 직업체험 활동(16.8%), 과학·정보 활동(14.8%)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 시기 역시 모험·개척활동(20.1%), 직업체험 활동(17.7%), 문화·예술활동(14.7%)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직업체험 활동(24.6%), 모험·개척활동(15.4%), 문화·예술활동(15.4%)의 순으로 체험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보존 활동(중학교 1학년 3.9%, 중학교 2학년 2.0%, 중학교 3학년 2.2%)은 중학교 3년 내내 참여 희망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4>.

표 II-14 참여 희망 1순위 체험활동 영역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건강·보건 활동	134	5.7	219	9.7	219	9.8
과학·정보 활동	347	14.8	307	13.5	271	12.1
교류 활동	102	4.4	173	7.6	180	8.0
모험·개척 활동	692	29.6	456	20.1	346	15.4
문화·예술 활동	251	10.7	334	14.7	347	15.4
봉사 활동	141	6.0	170	7.5	154	6.9
직업체험 활동	395	16.9	402	17.7	552	24.6
환경보존 활동	91	3.9	45	2.0	49	2.2
자기(인성) 개발 활동	188	8.0	162	7.1	128	5.7
합계	2340	100.0	2268	100.0	2246	100.0

(3) 참여 희망 2순위 체험활동 영역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 희망 2순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직업체험 활동(22.4%), 모험·개척 활동(15.3%), 과학·정보 활동(13.9%), 중학교 2학년에는 직업체험 활동(17.5%), 모험·개척 활동(16.8%), 문화·예술 활동(14.4%)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3학년에는 직업체험 활동(19.0%), 모험·개척 활동(16.9%), 문화·예술 활동(14.8%)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교류 활동(5.0%),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는 환경보존 활동(중학교 2학년 5.5%, 중학교 3학년 3.7%)의 참여 희망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5>.

표 II-15 참여 희망 2순위 체험활동 영역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건강·보건 활동	149	6.4	141	6.3	140	6.3
과학·정보 활동	324	13.9	277	12.3	224	10.0
교류 활동	116	5.0	195	8.6	187	8.3
모험·개척 활동	355	15.3	377	16.8	379	16.9
문화·예술 활동	280	12.0	323	14.4	332	14.8
봉사 활동	178	7.6	207	9.2	209	9.3
직업체험 활동	520	22.4	394	17.5	425	19.0
환경보존 활동	177	7.6	123	5.5	83	3.7
자기(인성) 개발 활동	225	9.7	213	9.5	259	11.6
합계	2322	100.0	2250	100.0	2237	100.0

(4) 참여 희망 3순위 체험활동 영역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 희망 3순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자기(인성) 개발 활동(15.3%), 직업체험 활동(14.1%), 과학·정보 활동(12.6%)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에는 자기(인성) 개발 활동(중학교 2학년 15.7%, 중학교 3학년 14.6%), 직업체험 활동(중학교 2학년 14.6%, 중학교 3학년 14.9%), 문화·예술 활동(중학교 2학년 12.7%, 중학교 3학년 12.0%)의 희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I-16>.

표 II-16 참여 희망 3순위 체험활동 영역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건강·보건 활동	199	8.6	194	8.7	188	8.5
과학·정보 활동	289	12.6	220	9.9	214	9.7
교류 활동	153	6.6	215	9.7	224	10.1
모험·개척 활동	260	11.3	222	10.0	246	11.1
문화·예술 활동	268	11.7	283	12.7	266	12.0
봉사 활동	239	10.4	256	11.5	226	10.2
직업체험 활동	325	14.1	324	14.6	329	14.9
환경보존 활동	215	9.3	162	7.3	141	6.3
자기(인성) 개발 활동	352	15.3	350	15.7	379	17.1
합계	2300	100.0	2226	100.0	2213	100.0

2. 중1 패널의 동아리활동 참여 실태 및 추이분석

1)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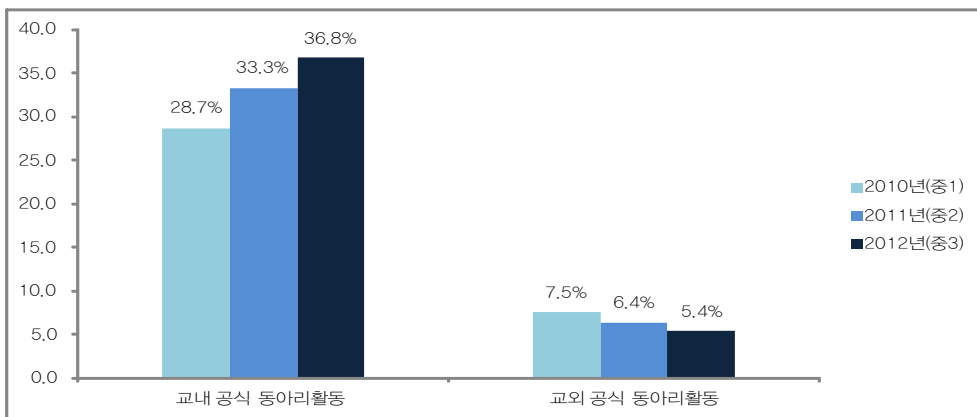
(1)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청소년이 참여하는 동아리활동을 교내의 공식 동아리와 학교 이외의 공식 동아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교내 공식 동아리는 방송반, 컴퓨터반 등 학교에서 인정한 모임을 의미하며, 교외 공식 동아리는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원하는 동아리 모임을 의미한다.

학교내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28.7%, 중학교 2학년 시기에서 33.3%, 중학교 3학년이 되면 36.8%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학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7.5%, 중학교 2학년에서는 6.4%,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5.4%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표 II-17>, [그림 II-9].

표 II-17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	28.7	33.3	36.8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7.5	6.4	5.4



【그림 II-9】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2) 청소년의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24.5% → 31.2% → 36.1%, 여자 청소년은 33.0% → 35.6% → 37.4%로 나타났고, 교외 공식 동아리 활동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8.1% → 6.2% → 5.4%, 여자 청소년은 6.8% → 6.6% → 5.4%로 나타났다<표 II-18>.

표 II-18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성별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	남자	24.5	31.2	36.1
	여자	33.0	35.6	37.4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남자	8.1	6.2	5.4
	여자	6.8	6.6	5.4

(3)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서울은 31.9% → 32.1% → 36.3%, 광역시는 28.8% → 37.5% → 45.6%, 시군구는 27.6% → 32.0% → 33.2%로 나타나, 특히 광역시 수준의 동아리활동 참여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서울은 6.1% → 5.6% → 4.4%로 조사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광역시는 6.7% → 7.1% → 8.7%는 지속적 증가, 시군구는 8.3% → 6.4% → 4.4%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19>.

표 II-19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도시규모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	서울	31.9	32.1	36.3
	광역시	28.8	37.5	45.6
	시군구	27.6	32.0	33.2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서울	6.1	5.6	4.4
	광역시	6.7	7.1	8.7
	시군구	8.3	6.4	4.4

(4)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가구 소득수준별 동아리활동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저소득 집단은 28.4% → 31.8% → 35.9%, 중간소득 집단은 27.6% → 33.3% → 35.9%, 고소득 집단은 34.2% → 35.7% → 42.2%로 나타나,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저소득 집단은 6.2% → 4.8% → 6.5%, 중간소득 집단은 7.1% → 6.4% → 4.7%, 고소득 집단은 10.0% → 7.9% → 7.6%로 나타나 중간소득과 고소득 집단의 경우는 동아리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0>.

표 II-20 가구 소득수준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가구 소득수준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	저	28.4	31.8	35.9
	중	27.6	33.3	35.9
	고	34.2	35.7	42.2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저	6.2	4.8	6.5
	중	7.1	6.4	4.7
	고	10.0	7.9	7.6

2)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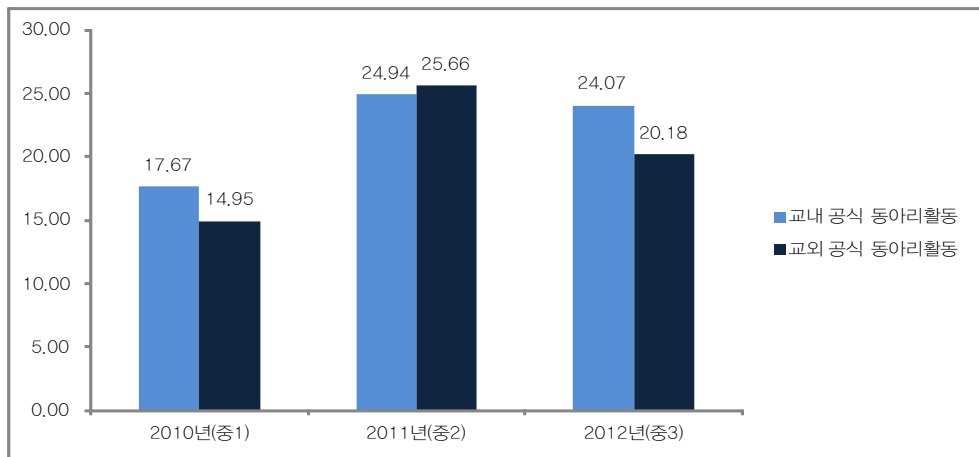
(1)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학교내의 공식적인 동아리활동에 대한 참여시간은 중학교 1학년 17.67시간, 중학교 2학년 24.94시간, 중학교 3학년 24.07시간으로 나타나 2학년과 3학년 시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외의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시간은 중학교 1학년 14.95시간, 중학교 2학년 25.66시간, 중학교 3학년 20.18시간으로 나타났다. 교내와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모두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참여시간이 증가하다 3학년 시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I-21>, [그림 II-10].

표 II-21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	642	17.67	14.031	751	24.94	35.971	804	24.07	35.330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167	14.95	15.231	144	25.66	50.969	117	20.18	22.181



【그림 II-10】 동아리활동 참여 시간 변화

(2) 청소년의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을 분석한 결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17.54시간 → 21.44시간 → 27.48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여자 청소년은 17.78시간 → 28.23시간 → 20.46시간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시간은 남자 청소년은 14.93시간 → 19.14시간 → 18.89시간, 여자 청소년은 14.97시간 → 32.57시간 → 21.59시간으로 나타났다<표 II-22>.

표 II-22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영역	성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교내 공식 동아리	남자	286	17.54	15.463	364	21.44	27.085	414	27.48	41.792
	여자	356	17.78	12.787	387	28.23	42.448	390	20.46	26.421
	소계	642	17.67	14.031	751	24.94	35.971	804	24.07	35.33
교외 공식 동아리	남자	93	14.93	16.261	74	19.14	29.668	61	18.89	20.271
	여자	74	14.97	13.947	70	32.57	66.05	56	21.59	24.196
	소계	167	14.95	15.231	144	25.66	50.969	117	20.18	22.181

(3)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을 분석한 결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서울은 16.66시간 → 27.87시간 → 17.58시간, 광역시는 16.69시간 → 23.5시간 → 18.23시간, 시군구는 18.54시간 → 24.7시간 → 30.7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서울은 13.56시간 → 34.81시간 → 15.94시간, 광역시는 17.92시간 → 14.8시간 → 19.41시간, 시군구는 14.1시간 → 29.63시간 → 22.01시간으로 나타났다<표 II-23>.

표 II-23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영역	도시규모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교내 공식 동아리	서울	127	16.66	10.897	119	27.87	33.198	132	17.58	19.325
	광역시	174	16.69	12.839	222	23.5	25.579	263	18.23	22.334
	시군구	342	18.54	15.54	383	24.7	40.794	386	30.73	45.197
	소계	642	17.67	14.031	724	24.85	35.521	780	24.3	35.762
교외 공식 동아리	서울	25	13.56	14.871	21	34.81	93.809	16	15.94	16.601
	광역시	41	17.92	18.375	42	14.8	14.718	49	19.41	22.862
	시군구	101	14.1	13.881	76	29.63	48.577	50	22.01	23.481
	소계	167	14.95	15.231	139	25.96	51.854	115	20.05	22.297

(4)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가구 소득수준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저소득 집단은 15.12시간 → 25.47시간 → 24.64시간, 중간소득 집단은 18.6시간 → 25.43시간 → 23.88시간, 고소득 집단은 18.68시간 → 24.72시간 → 26.05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저소득 집단은 18.31시간 → 35.7시간 → 14.41시간, 중간소득 집단은 14.83시간 → 26.33시간 → 21.54시간, 고소득 집단은 14.64시간 → 21.98시간 → 23.04시간으로 나타났다<표 II-24>.

표 II-24 가구 소득수준별 동아리활동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영역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교내 공식 동아리	저	115	15.12	13,967	133	25.47	41,638	146	24.64	31,763
	중	367	18.6	14,222	442	25.43	36,462	463	23.88	35,139
	고	131	18.68	13,895	135	24.72	32,35	158	26.05	41,586
	소계	613	17.97	14,148	710	25.31	36,707	767	24.47	35,932
교외 공식 동아리	저	26	18.31	21,363	19	35.7	64,367	26	14.41	19,119
	중	93	14.83	14,115	84	26.33	57,854	59	21.54	23,292
	고	36	14.64	13,626	31	21.98	22,412	28	23.04	23,349
	소계	155	15.36	15,384	134	26.64	52,641	113	20.26	22,463

3)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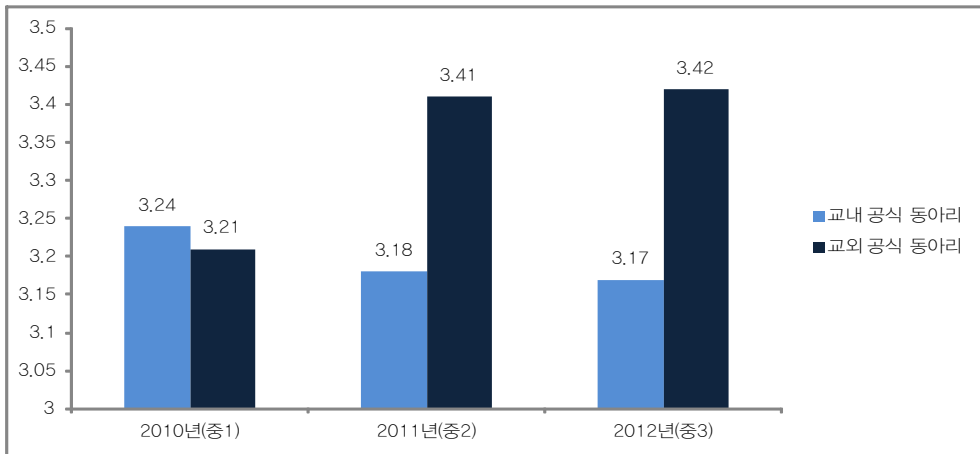
(1)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를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 만족도는 중학교 1학년 3.24, 중학교 2학년 3.18, 중학교 3학년 3.17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중학교 1학년 3.21에서 중학교 2학년 3.41, 중학교 3학년 3.42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5>.

표 II-25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교내 공식 동아리	665	3.24	.731	753	3.18	.757	782	3.17	.735
교외 공식 동아리	173	3.21	.779	145	3.41	.648	115	3.42	.605



【그림 II-11】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2) 청소년의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의 만족도를 성별로 조사한 결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3.3 → 3.22 → 3.21, 여자 청소년은 3.2 → 3.14 → 3.13으로 남자 청소년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3.21 → 3.42 → 3.42, 여자 청소년은 3.21 → 3.39 → 3.43으로 나타나 남자와 여자 청소년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I-26>.

표 II-26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영역	성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교내 공식 동아리	남자	296	3.3	0.711	368	3.22	0.754	405	3.21	0.767
	여자	369	3.2	0.745	385	3.14	0.759	377	3.13	0.698
	소계	369	3.2	0.745	753	3.18	0.757	782	3.17	0.735
교외 공식 동아리	남자	99	3.21	0.775	74	3.42	0.645	61	3.42	0.637
	여자	74	3.21	0.79	70	3.39	0.655	54	3.43	0.574
	소계	173	3.21	0.779	145	3.41	0.648	115	3.42	0.605

(3)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의 만족도를 도시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서울은 3.4 → 3.31 → 3.25, 광역시는 3.22 → 3.13 → 3.1, 시군구는 3.19 → 3.16 → 3.18로 나타났다. 또한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에는 서울은 3.39 → 3.23 → 3.91, 광역시는 3.34 → 3.42 → 3.21, 시군구는 3.12 → 3.44 → 3.51로 나타났다<표 II-27>.

표 II-27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영역	도시규모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교내 공식 동아리	서울	130	3.4	0.569	119	3.31	0.765	122	3.25	0.687
	광역시	177	3.22	0.742	222	3.13	0.756	254	3.1	0.737
	시군구	358	3.19	0.771	384	3.16	0.758	381	3.18	0.732
	소계	665	3.24	0.731	726	3.18	0.76	757	3.16	0.727
교외 공식 동아리	서울	25	3.39	0.869	21	3.23	0.871	14	3.91	0.303
	광역시	40	3.34	0.754	42	3.42	0.635	48	3.21	0.65
	시군구	108	3.12	0.76	76	3.44	0.591	52	3.51	0.536
	소계	173	3.21	0.779	139	3.4	0.653	113	3.43	0.607

(4) 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별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의 만족도를 가구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 저소득 집단은 3.19 → 3.13 → 3.15, 중간소득 집단은 3.23 → 3.2 → 3.13, 고소득 집단은 3.36 → 3.18 → 3.27로 나타났다.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에는 저소득 집단은 3.23 → 3.1 → 3.35, 중간소득 집단은 3.17 → 3.41 → 3.37, 고소득 집단은 3.31 → 3.67 → 3.65로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I-28>.

표 II-28 가구 소득수준별 동아리활동 참여 만족도 변화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영역	가구 소득수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교내 공식 동아리	저	120	3.19	0.737	133	3.13	0.803	146	3.15	0.72
	중	374	3.23	0.71	441	3.2	0.717	446	3.13	0.757
	고	138	3.36	0.719	138	3.18	0.841	153	3.27	0.714
	소계	632	3.25	0.719	712	3.18	0.758	746	3.16	0.742
교외 공식 동아리	저	27	3.23	0.862	20	3.1	0.809	27	3.35	0.579
	중	95	3.17	0.762	83	3.41	0.605	60	3.37	0.63
	고	40	3.31	0.82	31	3.67	0.523	26	3.65	0.487
	소계	162	3.21	0.791	134	3.42	0.639	112	3.43	0.596

제 3 장

청소년의 문화활동 등 경험 실태 및 추이 분석

1. 초4 패널의 문화활동 등
경험 실태 및 추이 분석
2. 중1 패널의 문화활동 등
경험 실태 및 추이 분석

제 3 장

청소년의 문화활동 등 경험 실태 및 추이 분석

1. 초4 패널의 문화활동 등 경험 실태 및 추이 분석

1) 초4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 변화

(1)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2010년)부터 6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문화활동(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의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77.8%, 5학년에는 81.6%, 6학년에는 79.4%로 나타났다<표 III-1>. 다만, 4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4학년이 된 이후'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5학년과 6학년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1 초4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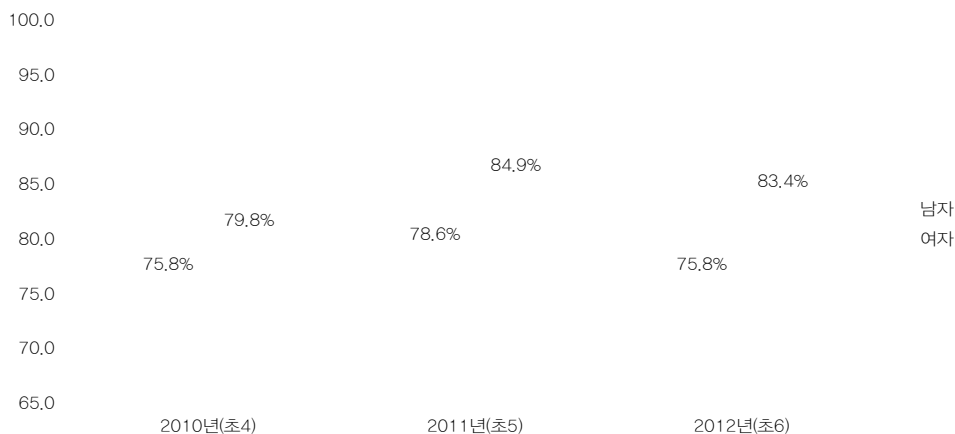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77.8	81.6	79.4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4학년 시기에는 75.8%, 5학년에는 78.6%, 6학년에는 75.8%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4학년 시기에 79.8%, 5학년 84.9%, 6학년 83.4%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2>.

표 III-2 초4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남자	75.8	78.6	75.8
여자	79.8	84.9	83.4
전체	77.7	81.6	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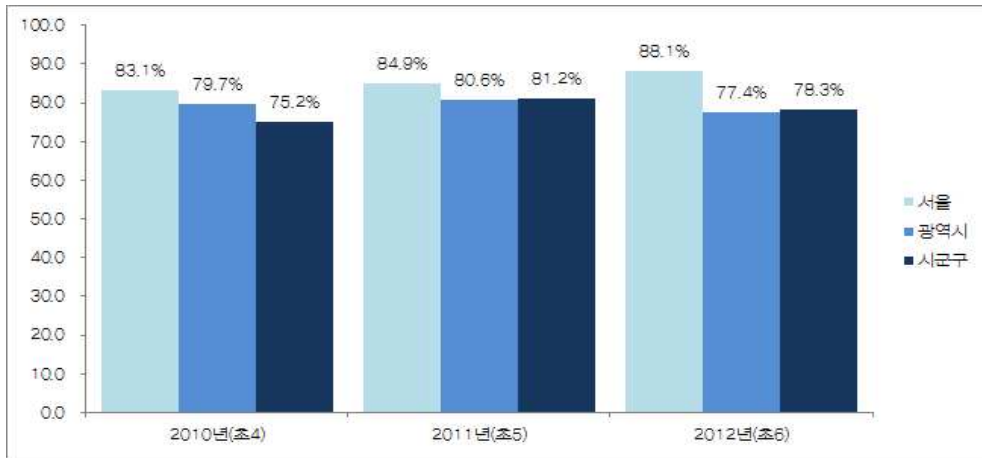
【그림 III-1】 초4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 청소년은 4학년 83.1%, 5학년 84.9%, 6학년 88.1%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4학년 79.7%, 5학년 80.6%, 6학년 77.4%로 조사되었고, 시군구 거주 청소년의 경우는 4학년 75.2%, 5학년 81.2%, 6학년 78.3%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

표 III-3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서울	83.1	84.9	88.1
광역시	79.7	80.6	77.4
시군구	75.2	81.2	78.3
전체	77.7	81.6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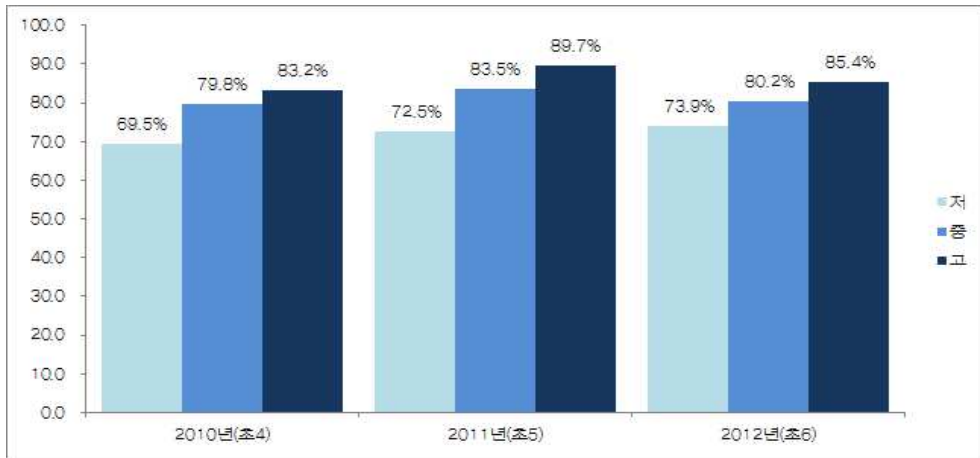
【그림 III-2】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률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은 4학년 시기에 69.5%, 5학년 72.5%, 6학년 73.9%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4학년 79.8%, 5학년 83.5%, 6학년 80.2%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4학년 83.2%, 5학년 89.7%, 6학년 85.4%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 가정의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문화활동 경험률이 높았다<표 III-4>.

표 III-4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률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저	69.5	72.5	73.9
중	79.8	83.5	80.2
고	83.2	89.7	85.4
전체	78.2	82.2	79.7



【그림 III-3】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률 변화

(2) 문화활동 경험정도의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2010년)부터 6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문화활동에 참여한 경우, 그 정도(횟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3.76회, 5학년에는 4.36회, 6학년에는 4.12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 다만, 4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4학년이 된 이후'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5학년과 6학년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5 초4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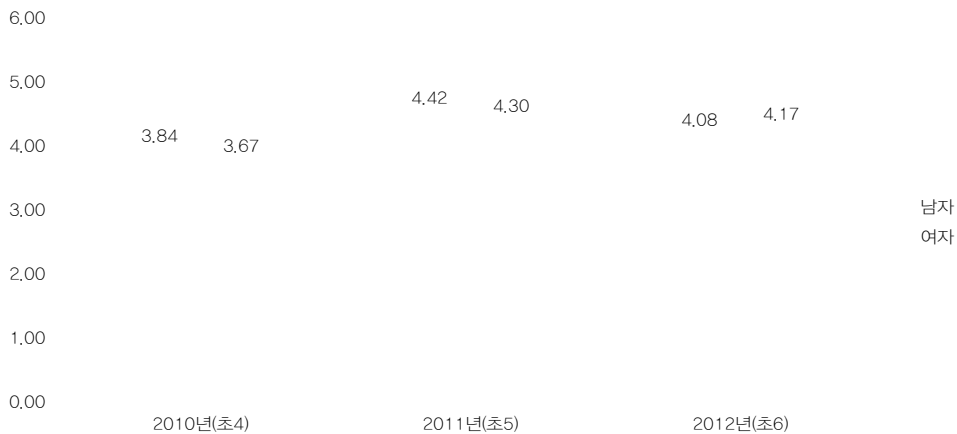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2,368	3.76	4.752	2,255	4.36	5.228	2,211	4.12	5.293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4학년 시기에 3.84회, 5학년에는 4.42회, 6학년에는 4.08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4학년 3.67회, 5학년 4.30회, 6학년 4.17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

표 III-6 초4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남자	1,237	3.84	4.996	1,181	4.42	5.667	1,158	4.08	5.571
여자	1,131	3.67	4.470	1,074	4.30	4.701	1,052	4.17	4.971
전체	2,368	3.76	4.752	2,255	4.36	5.228	2,211	4.12	5.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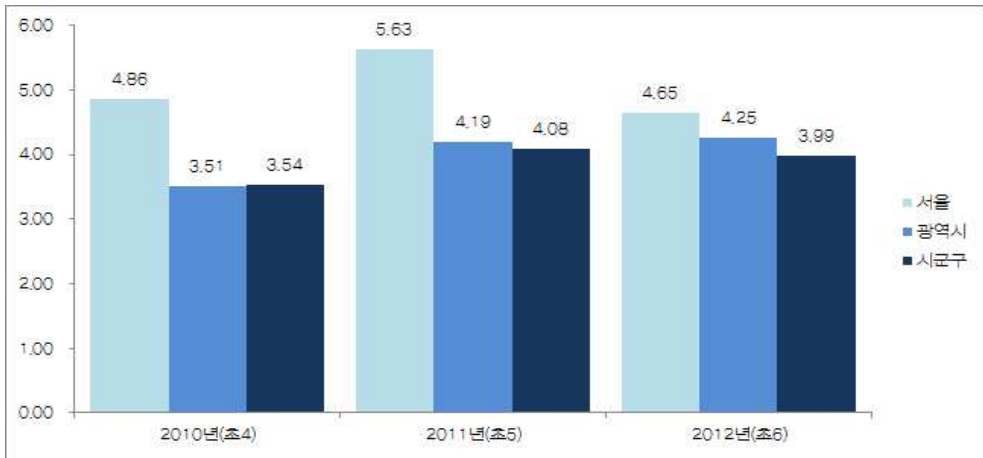
【그림 III-4】 초4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4학년에는 4.86회, 5학년 5.63회, 6학년 4.65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거주 청소년은 4학년 3.51회, 5학년 4.19회, 6학년 4.25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4학년 3.54회, 5학년 4.08회, 6학년 3.99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

표 III-7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서울	408	4.86	5.707	371	5.63	6.523	361	4.65	4.679
광역시	616	3.51	4.428	576	4.19	5.274	566	4.25	5.952
시군구	1,344	3.54	4.527	1,251	4.08	4.654	1,219	3.99	5.222
전체	2,368	3.76	4.752	2,199	4.37	5.205	2,146	4.17	5.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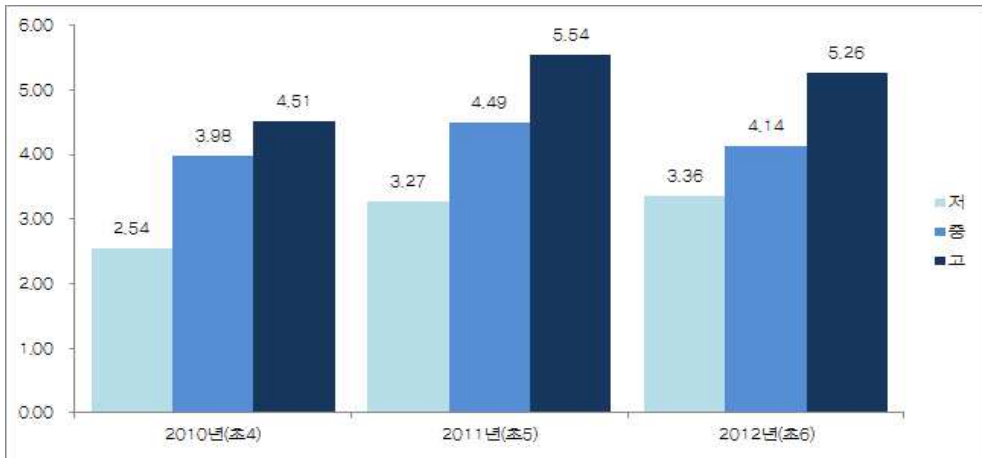
[그림 III-5]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집단은 4학년 2.54회, 5학년 3.27회, 6학년 3.36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4학년 3.98회, 5학년 4.49회, 6학년 4.14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4학년 4.51회, 5학년 5.54회, 6학년 5.26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표 III-8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저	449	2.54	3.271	425	3.27	4.437	426	3.36	4.893
중	1435	3.98	4.939	1360	4.49	5.250	1338	4.14	5.107
고	340	4.51	5.087	331	5.54	5.935	308	5.26	6.336
전체	2224	3.77	4.718	2116	4.41	5.255	2073	4.15	5.293



【그림 III-6】 초4 패널의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2) 초4 패널의 가족·단체 여행 경험 변화

(1)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2010년)부터 6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가족이나 단체를 통해 1박 이상의 여행(학교나 학급 전체가 참여한 수련회 등은 제외) 경험여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68.2%, 5학년 시기에는 75.9%, 6학년 시기에는 75.5%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 다만, 4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4학년이 된 이후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5학년과 6학년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9 초4 패널의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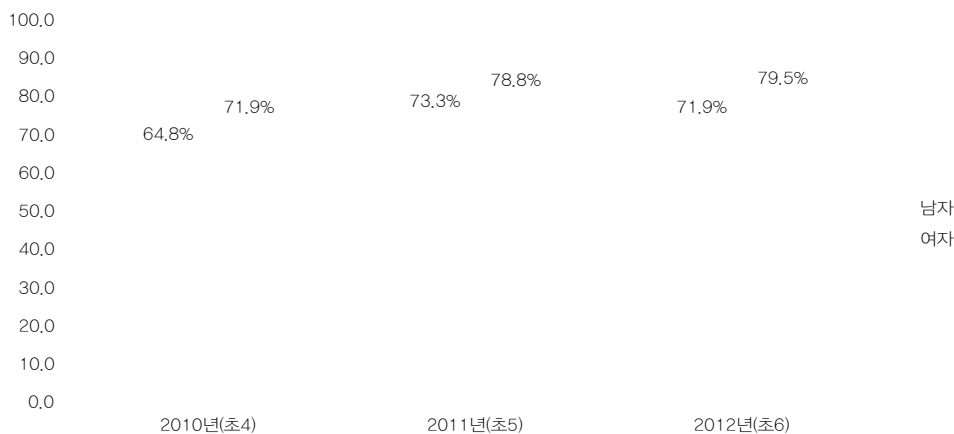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68.2	75.9	75.5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4학년 64.8%, 5학년 73.3%, 6학년 71.9%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4학년 71.9%, 5학년 78.8%, 6학년 79.5%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경험율이 높게 조사되었다<표 III-10>.

표 III-10 초4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남자	64.8	73.3	71.9
여자	71.9	78.8	79.5
전체	68.2	75.9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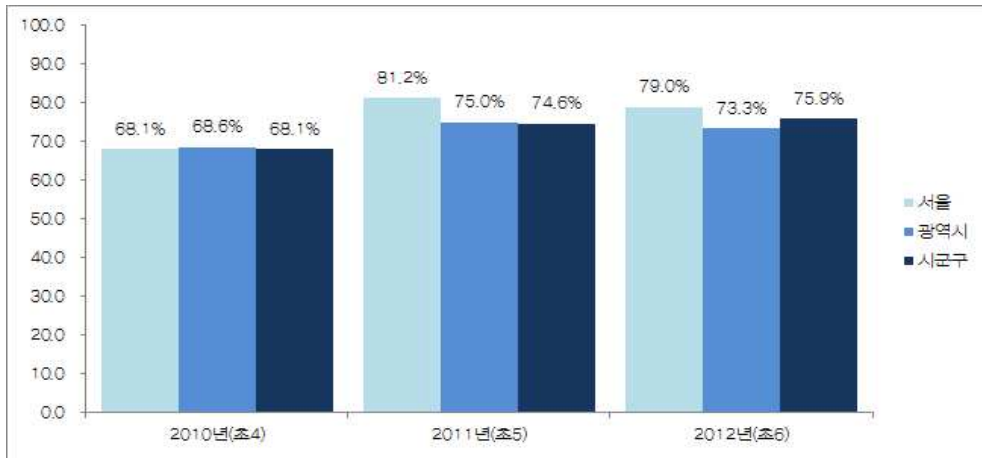
【그림 III-7】 초4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4학년 68.1%, 5학년 81.2%, 6학년 79.0%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4학년 68.6%, 5학년 75.0%, 6학년 73.3%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군구 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4학년 68.1%, 5학년 74.6%, 6학년 75.9%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족이나 단체 여행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1>.

표 III-11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서울	68.1	81.2	79.0
광역시	68.6	75.0	73.3
시군구	68.1	74.6	75.9
전체	68.2	75.8	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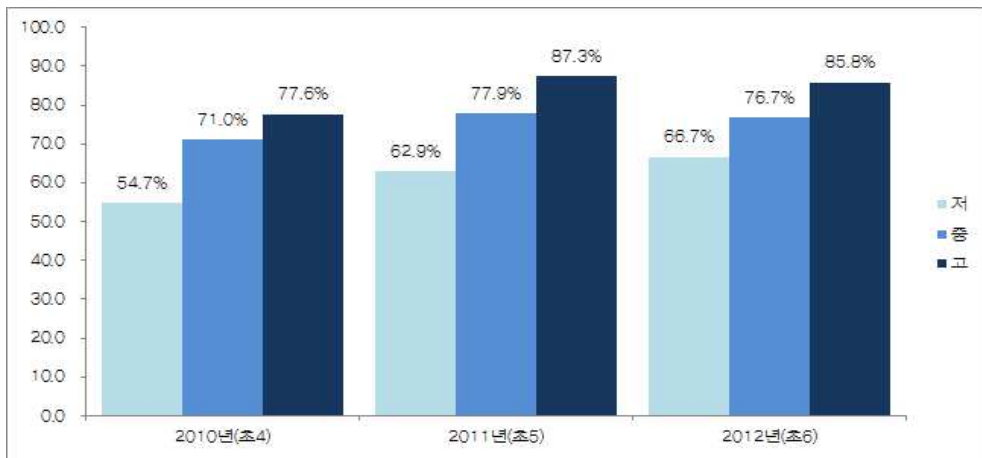
【그림 III-8】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률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집단은 4학년 54.7%, 5학년 62.9%, 6학년 66.7%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4학년 71.0%, 5학년 77.9%, 6학년 76.7%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4학년 77.6%, 5학년 87.3%, 6학년 85.8%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2>.

표 III-12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률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저	54.7	62.9	66.7
중	71.0	77.9	76.7
고	77.6	87.3	85.8
전체	68.7	76.3	76.0



【그림 III-9】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률 변화

(2)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의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2010년)부터 6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정도(횟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3.12회, 5학년 시기에는 3.57회, 6학년 시기에는 3.33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3>. 다만, 4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4학년이 된 이후’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5학년과 6학년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13 초4 패널의 가족·단체 여행정도 변화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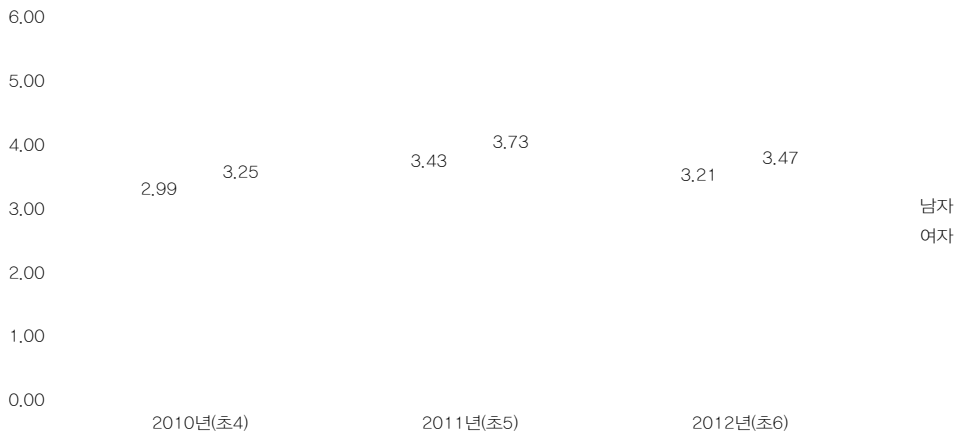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2370	3.12	4.778	2257	3.57	4.613	2214	3.33	4.485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4학년 2.99회, 5학년 3.43회, 6학년 3.21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4학년 3.25회, 5학년 3.73회, 6학년 3.47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4>.

표 III-14 초4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남자	1241	2.99	4.652	1184	3.43	4.495	1159	3.21	4.285
여자	1129	3.25	4.911	1073	3.73	4.738	1055	3.47	4.693
전체	2370	3.12	4.778	2257	3.57	4.613	2214	3.33	4.485



【그림 III-10】 초4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4학년 시기에는 3.61회, 5학년 4.17회, 6학년 3.92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4학년 3.13회, 5학년 3.51회, 6학년 3.07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4학년 2.96회, 5학년 3.43회, 6학년 3.29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5>.

표 III-15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서울	407	3.61	5.812	373	4.17	4.694	362	3.92	4.589
광역시	615	3.13	4.887	576	3.51	4.600	566	3.07	3.814
시군구	1348	2.96	4.357	1253	3.43	4.571	1222	3.29	4.756
전체	2370	3.12	4.778	2202	3.58	4.606	2150	3.34	4.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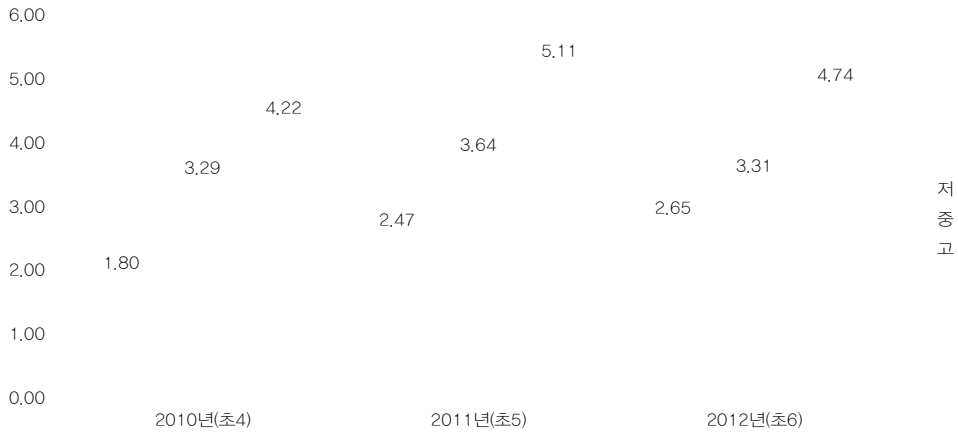
【그림 III-11】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정에 해당되는 집단은 4학년 1.80회, 5학년 2.47회, 6학년 2.65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4학년 3.29회, 5학년 3.64회, 6학년 3.31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가정의 집단은 4학년 4.22회, 5학년 5.11회, 6학년 4.74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6>.

표 III-16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저	451	1.80	2.991	426	2.47	3.588	426	2.65	4.498
중	1436	3.29	5.026	1360	3.64	4.618	1339	3.31	4.028
고	340	4.22	5.265	332	5.11	5.755	309	4.74	5.614
전체	2227	3.13	4.783	2119	3.63	4.697	2074	3.39	4.438



【그림 III-12】 초4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3) 초4 패널의 해외방문 경험 변화

(1)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2010년)부터 6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해외방문 경험여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16.7%, 5학년 시기에는 12.0%, 6학년 시기에는 10.9%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7>. 다만, 4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5학년과 6학년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17 초4 패널의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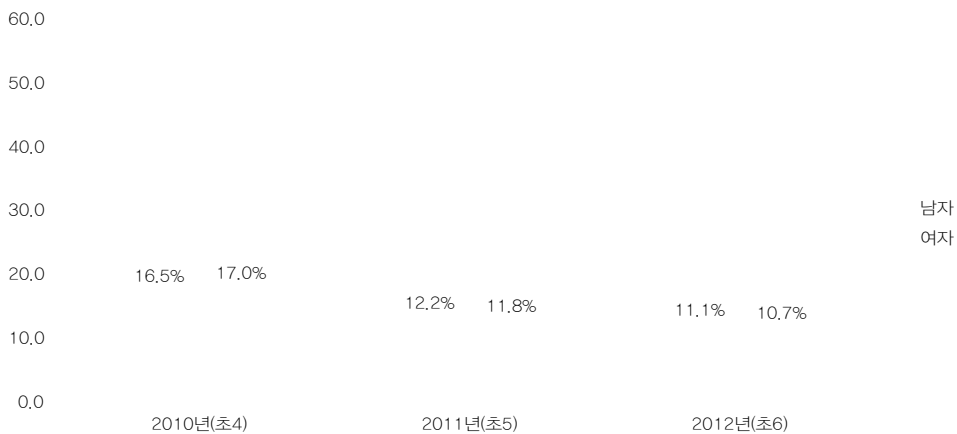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16.7	12.0	10.9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성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4학년 16.5%, 5학년 12.2%, 6학년 11.1%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4학년 17.0%, 5학년 11.8%, 6학년 10.7%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8>.

표 III-18 초4 패널의 성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남자	16.5	12.2	11.1
여자	17.0	11.8	10.7
전체	16.7	12.0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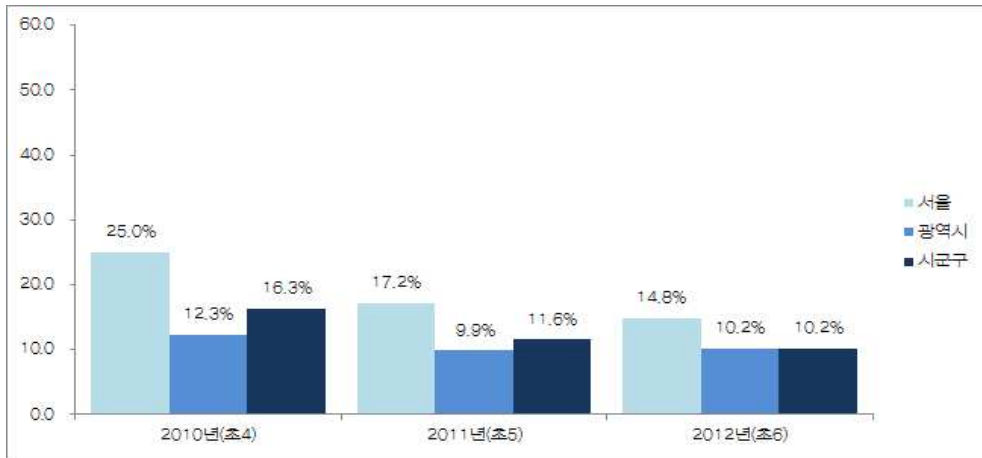
【그림 III-13】 초4 패널의 성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4학년 25.0%, 5학년 17.2%, 6학년 14.8%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4학년 12.3%, 5학년 9.9%, 6학년 10.2%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4학년 16.3%, 5학년 11.6%, 6학년 10.2%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9>.

표 III-19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서울	25.0	17.2	14.8
광역시	12.3	9.9	10.2
시군구	16.3	11.6	10.2
전체	16.7	12.1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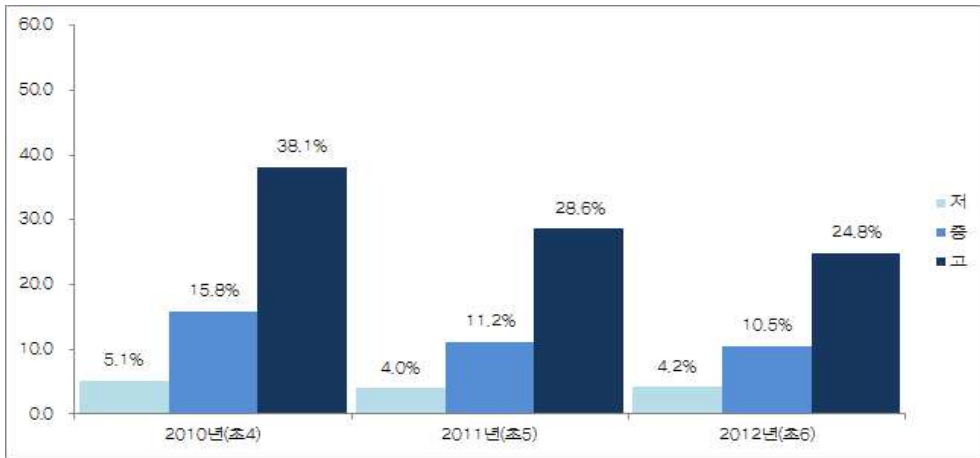
【그림 III-14】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방문 경험률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방문 경험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집단은 4학년 5.1%, 5학년 4.0%, 6학년 4.2%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4학년 15.8%, 5학년 11.2%, 6학년 10.5%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4학년 38.1%, 5학년 28.6%, 6학년 24.8%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해외방문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20>.

표 III-20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방문 경험률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저	5.1	4.0	4.2
중	15.8	11.2	10.5
고	38.1	28.6	24.8
전체	17.0	12.5	11.4



【그림 III-15】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2)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2010년)부터 6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해외 여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4.3%, 5학년에는 38.6%, 6학년에는 40.8%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 다만, 4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5학년과 6학년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21 초4 패널의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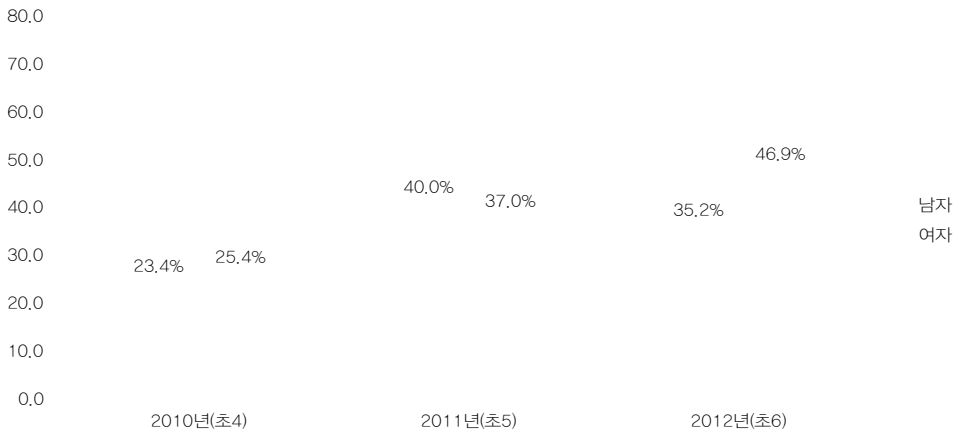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24.3	38.6	40.8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4학년 23.4%, 5학년 40.0%, 6학년 35.2%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4학년 25.4%, 5학년 37.0%, 6학년 46.9%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2>.

표 III-22 초4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남자	23.4	40.0	35.2
여자	25.4	37.0	46.9
전체	24.4	38.6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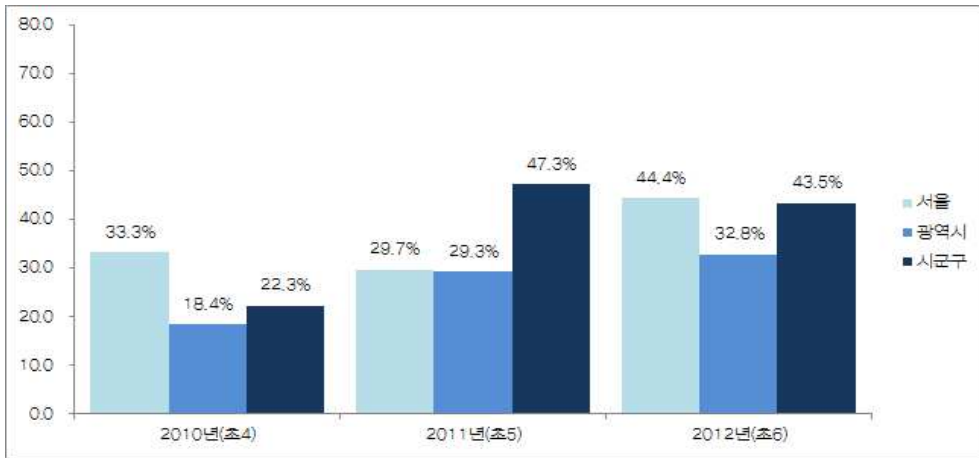
【그림 III-16】 초4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4학년 33.3%, 5학년 29.7%, 6학년 44.4%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거주 청소년의 경우 4학년 18.4%, 5학년 29.3%, 6학년 32.8%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 거주 청소년은 4학년 22.3%, 5학년 47.3%, 6학년 43.5%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3>.

표 III-23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서울	33.3	29.7	44.4
광역시	18.4	29.3	32.8
시군구	22.3	47.3	43.5
전체	24.4	39.2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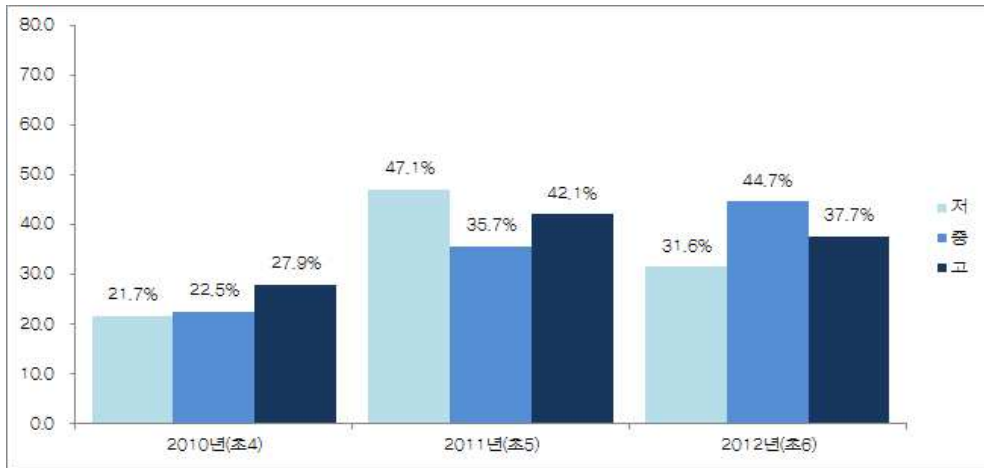
【그림 III-17】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정에 해당되는 집단은 4학년 21.7%, 5학년 47.1%, 6학년 31.6%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수준가정 집단은 4학년 22.5%, 5학년 35.7%, 6학년 44.7%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4학년 27.9%, 5학년 42.1%, 6학년 37.7%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4>.

표 III-24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저	21.7	47.1	31.6
중	22.5	35.7	44.7
고	27.9	42.1	37.7
전체	24.3	38.7	41.4



【그림 III-18】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경험률 변화

(3)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2010년)부터 6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196.28일, 5학년에는 35.78일, 6학년에는 41.60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5>. 다만, 4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5학년과 6학년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25 초4 패널의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단위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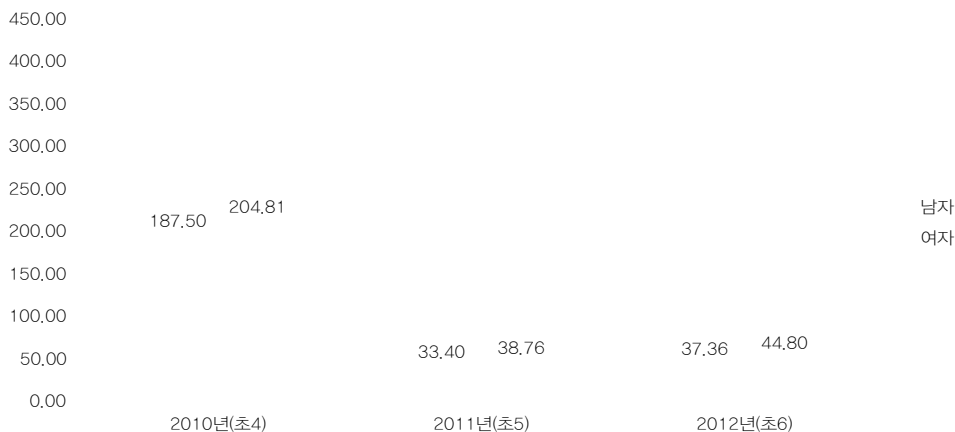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96	196.28	327.175	105	35.78	50.990	93	41.60	38.763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4학년 시기에 187.50일, 5학년 33.40일, 6학년 37.36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4학년 시기에 204.81일, 5학년 38.76일, 6학년 44.80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6>.

표 III-26 초4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단위 : 일)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남자	47	187.50	299,080	58	33.40	53,144	40	37.36	35,798
여자	49	204.81	355,274	47	38.76	48,569	53	44.80	40,901
전체	96	196.28	327,175	105	35.78	50,990	93	41.60	38,763



【그림 III-19】 초4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4학년 322.59일, 5학년 46.36일, 6학년 49.75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거주 청소년은 4학년 187.19일, 5학년 43.68일, 6학년 35.93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의 경우는 4학년 112.55일, 5학년 31.03일, 6학년 39.37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7>.

표 III-27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단위 : 일)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서울	34	322.59	445,299	19	46.36	62,869	24	49.75	48,128
광역시	13	187.19	292,009	17	43.68	58,829	19	35.93	26,637
시군구	49	112.55	192,266	69	31.03	45,300	50	39.37	38,095
전체	96	196.28	327,175	105	35.86	51,040	92	41.35	38,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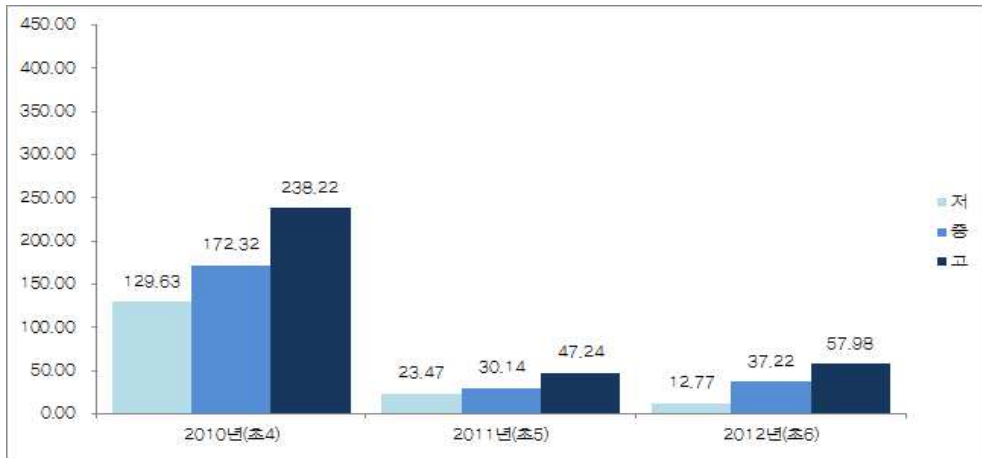
【그림 III-20】 초4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집단은 4학년 129.63일, 5학년 23.47일, 6학년 12.77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4학년 172.32일, 5학년 30.14일, 6학년 37.22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4학년 238.22일, 5학년 47.24일, 6학년 57.98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8>.

표 III-28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단위 : 일)

구분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저	4	129.63	323.326	8	23.47	25.965	6	12.77	11.583
중	51	172.32	298.283	55	30.14	46.417	60	37.22	28.694
고	36	238.22	385.700	40	47.24	59.593	27	57.98	53.727
전체	91	196.80	334.920	103	36.35	51.318	92	41.88	38.817



【그림 III-21】 초4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2. 중1 패널의 문화활동 등 경험 실태 및 추이 분석

1) 중1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 변화

(1)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문화활동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79.7%, 2학년 시기에는 79.2%, 3학년 시기에는 78.2%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9>. 다만, 1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중학생이 된 이후'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2학년과 3학년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29 중1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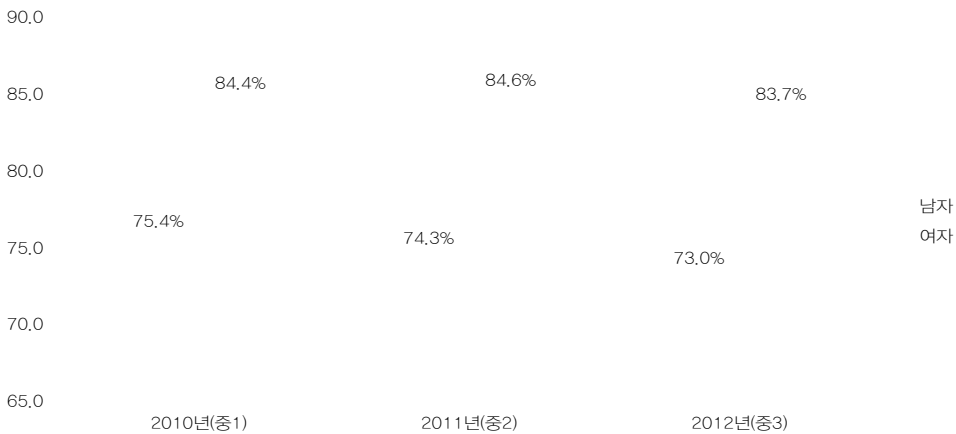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79.7	79.2	78.2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1학년 75.4%, 2학년 74.3%, 3학년 73.0%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학년 84.4%, 2학년 84.6%, 3학년 83.7%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문화활동 경험율이 높게 조사되었다<표 III-30>.

표 III-30 중1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남자	75.4	74.3	73.0
여자	84.4	84.6	83.7
전체	79.7	79.2	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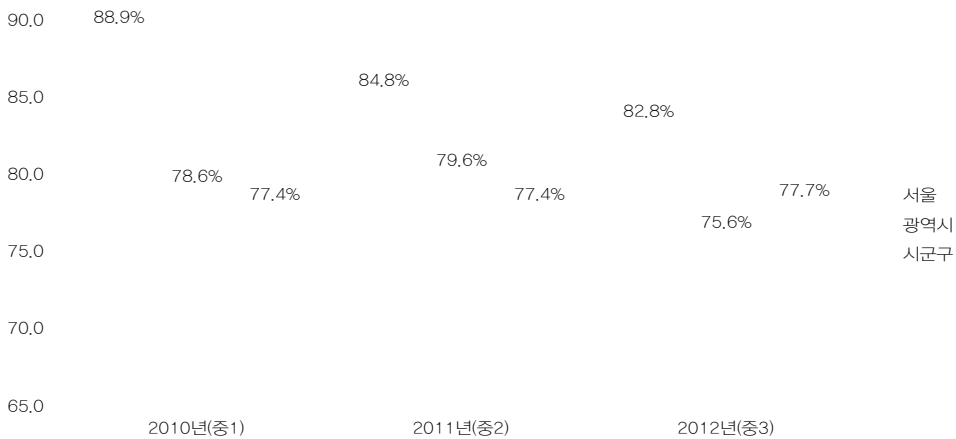
【그림 III-22】 중1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1학년 88.9%, 2학년 84.8%, 3학년 82.8%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1학년 78.6%, 2학년 79.6%, 3학년 75.6%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문화활동 경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군구는 1학년 77.4%, 2학년 77.4%, 3학년 77.7%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1>. 평균적으로 볼 때 거주지역이 서울, 광역시, 시군구의 순으로 문화활동 경험율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시군구의 경우는 학년에 관계없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1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서울	88.9	84.8	82.8
광역시	78.6	79.6	75.6
시군구	77.4	77.4	77.7
전체	79.7	79.2	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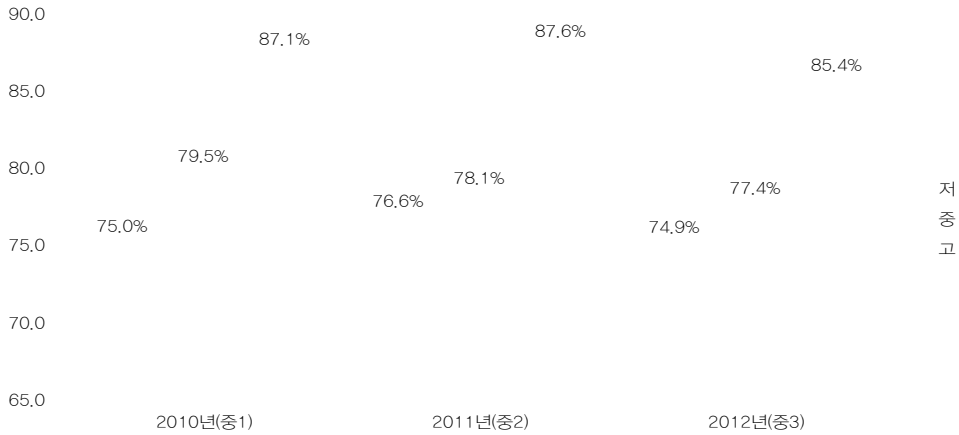
【그림 III-23】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집단은 1학년 75.0%, 2학년 76.6%, 3학년 74.9%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1학년 79.5%, 2학년 78.1%, 3학년 77.4%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1학년 87.1%, 2학년 87.6%, 3학년 85.4%가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2>.

표 III-32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저	75.0	76.6	74.9
중	79.5	78.1	77.4
고	87.1	87.6	85.4
전체	80.0	79.5	78.4



【그림 III-24】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률 변화

(2) 문화활동 경험정도의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문화활동에 참여한 경우, 그 정도(횟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3.44회, 2학년 시기에는 4.06회, 3학년 시기에는 4.48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3>. 다만, 1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중학생이 된 이후'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2학년과 3학년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33 중1 패널의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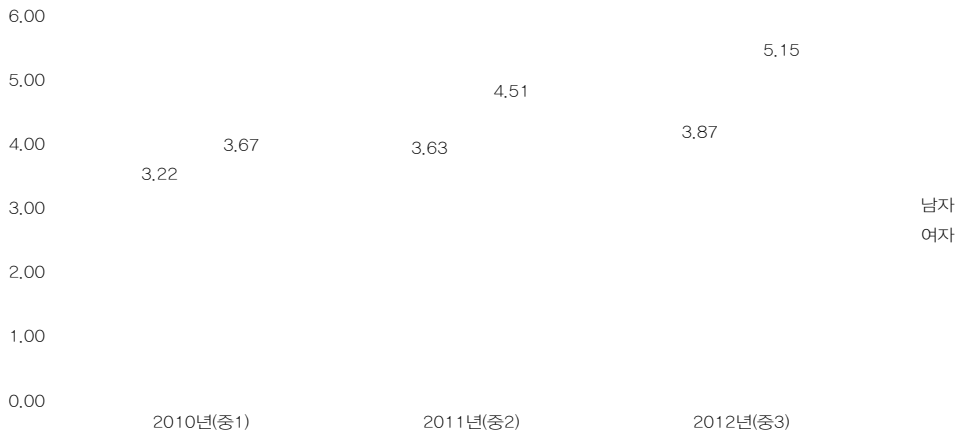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2,349	3.44	4.380	2,280	4.06	4.997	2,257	4.48	5.819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1학년 3.22회, 2학년 3.63회, 3학년 3.87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학년 3.67회, 2학년 4.51회, 3학년 5.15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4>.

표 III-34 중1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남자	1214	3.22	4.511	1185	3.63	4.731	1172	3.87	5.383
여자	1134	3.67	4.224	1095	4.51	5.234	1085	5.15	6.190
전체	2349	3.44	4.380	2280	4.06	4.997	2257	4.48	5.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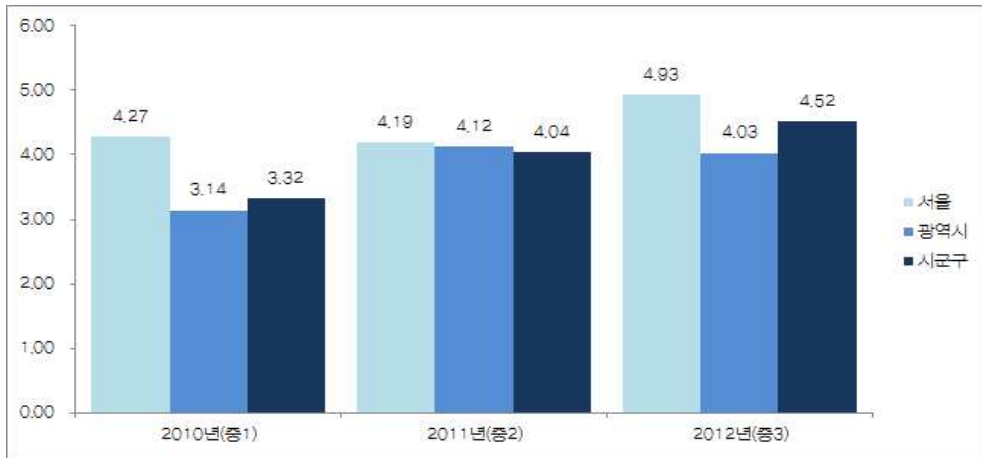
【그림 III-25】 중1 패널의 성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1학년 4.27회, 2학년 4.19회, 3학년 4.93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1학년 3.14회, 2학년 4.12회, 3학년 4.03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는 1학년 3.32회, 2학년 4.04회, 3학년 4.52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5>.

표 III-35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서울	406	4.27	5.681	376	4.19	4.266	366	4.93	6.358
광역시	626	3.14	3.618	592	4.12	5.216	591	4.03	5.268
시군구	1317	3.32	4.219	1210	4.04	5.168	1211	4.52	5.909
전체	2349	3.44	4.380	2178	4.09	5.036	2168	4.45	5.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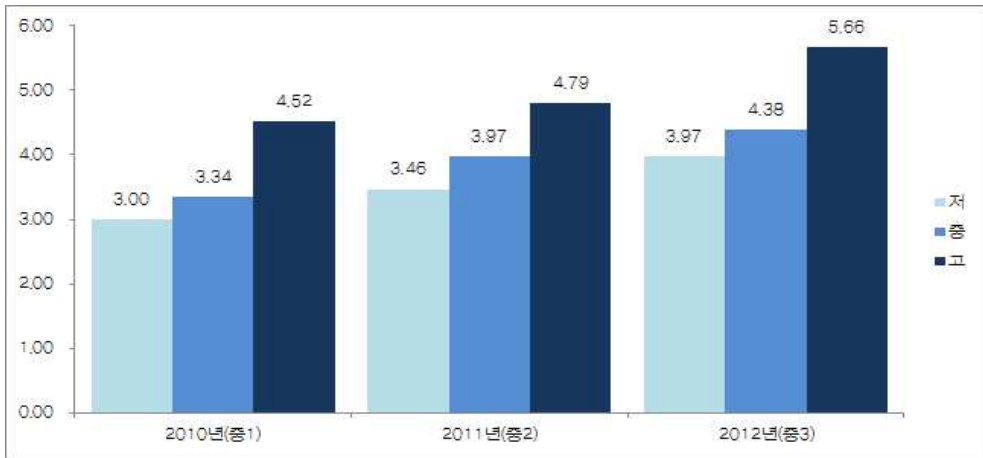
【그림 III-26】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집단은 1학년 3.00회, 2학년 3.46회, 3학년 3.97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1학년 3.34회, 2학년 3.97회, 3학년 4.38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1학년 4.52회, 2학년 4.79회, 3학년 5.66회 문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6>.

표 III-36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저	436	3.00	3.696	418	3.46	4.433	418	3.97	5.676
중	1373	3.34	4.038	1337	3.97	5.000	1329	4.38	5.437
고	402	4.52	6.120	394	4.79	4.987	385	5.66	7.280
전체	2212	3.49	4.457	2150	4.02	4.907	2132	4.53	5.881



【그림 III-27】 중1 패널의 가구소득 수준별 문화활동 경험정도 변화

2) 중1 패널의 가족·단체 여행 경험 변화

(1)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가족·단체 여행 경험여부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67.7%, 2학년 시기에는 71.4%, 3학년 시기에는 63.6%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7>. 다만, 1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중학생이 된 이후'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2학년과 3학년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37 중1 패널의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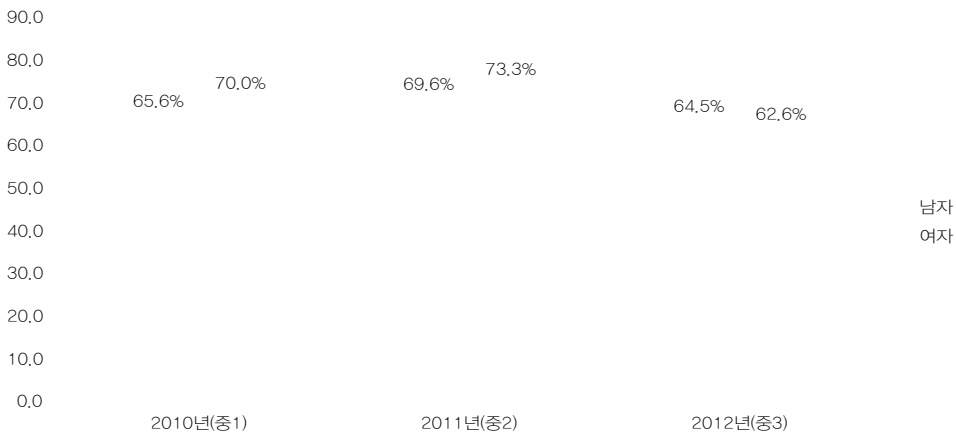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67.7	71.4	63.6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1학년 65.6%, 2학년 69.6%, 3학년 64.5%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학년 70.0%, 2학년 73.3%, 3학년 62.6%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8>.

표 III-38 중1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남자	65.6	69.6	64.5
여자	70.0	73.3	62.6
전체	67.7	71.4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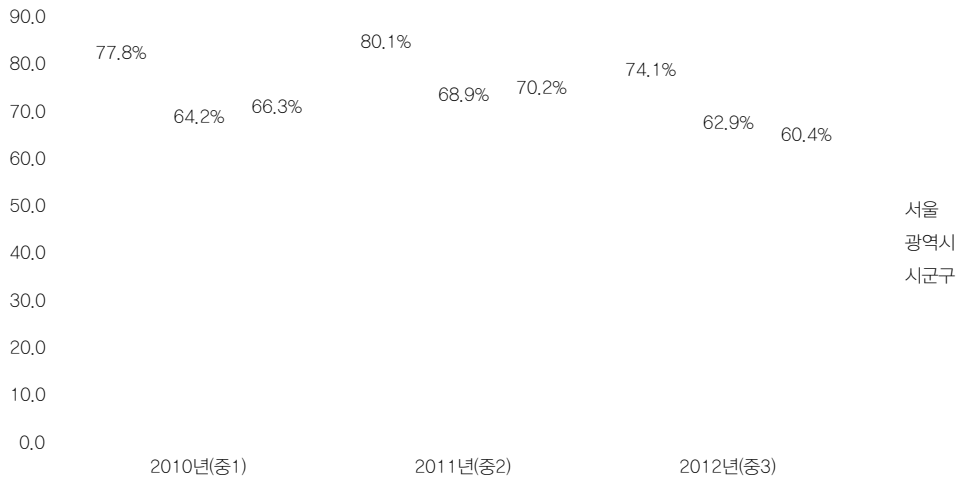
【그림 III-28】 중1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1학년 77.8%, 2학년 80.1%, 3학년 74.1%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거주 청소년은 1학년 64.2%, 2학년 68.9%, 3학년 62.9%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1학년 66.3%, 2학년 70.2%, 3학년 60.4%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9>.

표 III-39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서울	77.8	80.1	74.1
광역시	64.2	68.9	62.9
시군구	66.3	70.2	60.4
전체	67.7	71.5	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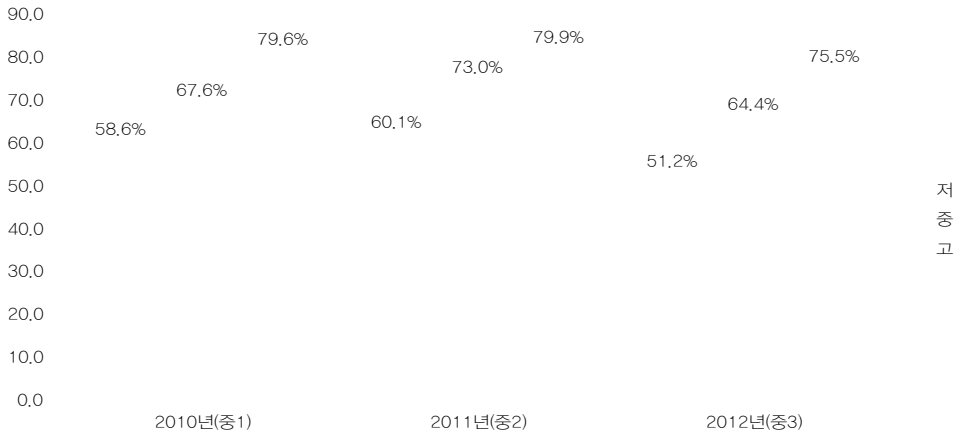
【그림 III-29】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률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정에 해당하는 집단은 1학년 58.6%, 2학년 60.1%, 3학년 51.2%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의 경우는 1학년 67.6%, 2학년 73.0%, 3학년 64.4%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의 경우는 1학년 79.6%, 2학년 79.9%, 3학년 75.5%가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0>.

표 III-40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률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저	58.6	60.1	51.2
중	67.6	73.0	64.4
고	79.6	79.9	75.5
전체	68.0	71.8	63.8



【그림 III-30】 중1 패널의 가구소득 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률 변화

(2)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의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가족·단체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정도(횟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평균 2.31회, 2학년에는 2.53회, 3학년에는 2.01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1>. 다만, 1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중학생이 된 이후’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2학년과 3학년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41 중1 패널의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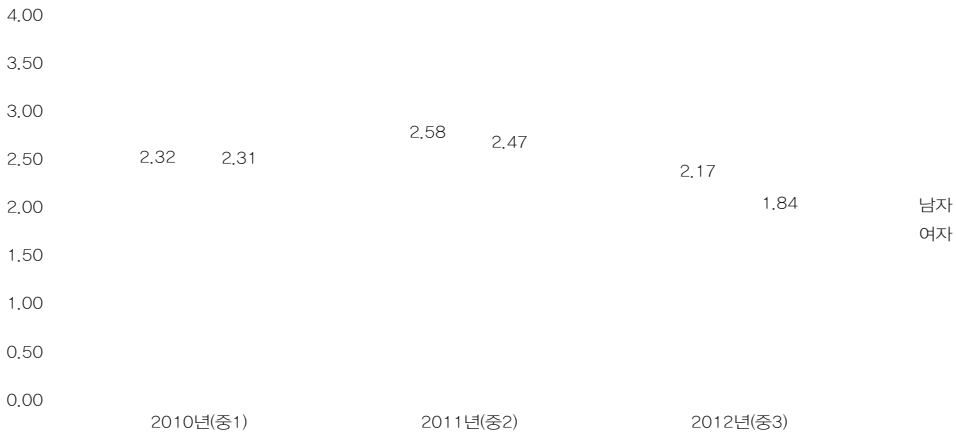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2346	2.31	3.367	2280	2.53	4.215	2257	2.01	3.144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1학년 2.32회, 2학년 2.58회, 3학년 2.17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학년 2.31회, 2학년 2.47회, 3학년 1.84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2>.

표 III-42 중1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남자	1213	2.32	3.456	1185	2.58	4.396	1172	2.17	3.430
여자	1134	2.31	3.270	1095	2.47	4.011	1085	1.84	2.795
전체	2346	2.31	3.367	2280	2.53	4.215	2257	2.01	3.144



【그림 III-31】 중1 패널의 성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1학년 2.94회, 2학년 2.65회, 3학년 2.57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1학년 2.07회, 2학년 2.40회, 3학년 1.94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는 1학년 2.23회, 2학년 2.56회, 3학년 1.89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3>.

표 III-43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서울	406	2.94	3.414	376	2.65	2.650	366	2.57	4.184
광역시	626	2.07	3.342	592	2.40	3.364	591	1.94	3.047
시군구	1314	2.23	3.342	1210	2.56	5.005	1212	1.89	2.874
전체	2346	2.31	3.367	2178	2.53	4.266	2169	2.02	3.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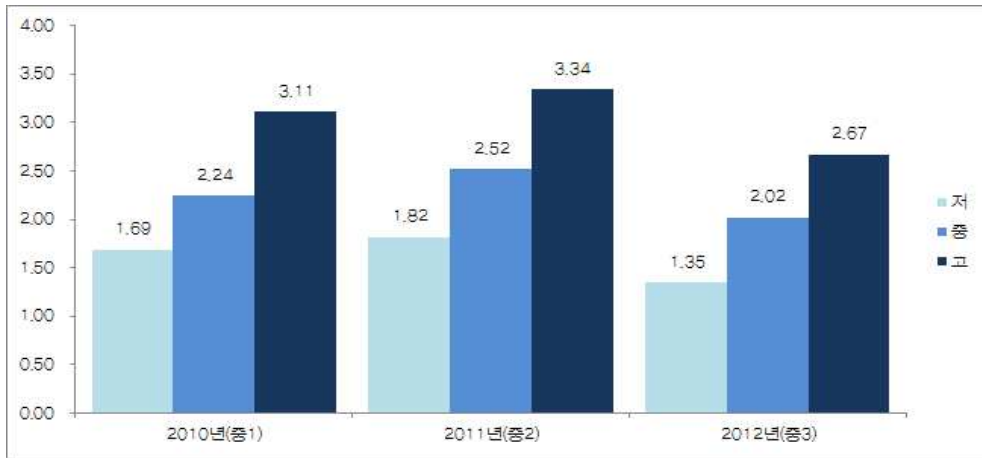
【그림 Ⅲ-32】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집단은 1학년 1.69회, 2학년 1.82회, 3학년 1.35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1학년 2.24회, 2학년 2.52회, 3학년 2.02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1학년 3.11회, 2학년 3.34회, 3학년 2.67회 가족·단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4>.

표 Ⅲ-44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단위 : 회)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저	435	1.69	2.756	418	1.82	2.561	418	1.35	1.999
중	1372	2.24	3.235	1337	2.52	3.736	1330	2.02	3.126
고	402	3.11	3.829	394	3.34	6.567	385	2.67	3.792
전체	2209	2.29	3.294	2150	2.53	4.251	2133	2.01	3.103



【그림 III-33】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가족·단체 여행 경험정도 변화

3) 중1 패널의 해외방문 경험 변화

(1)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해외방문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24.1%, 2학년 시기에는 10.8%, 3학년 시기에는 8.8%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5>. 다만, 1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지금까지'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2학년과 3학년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45 중1 패널의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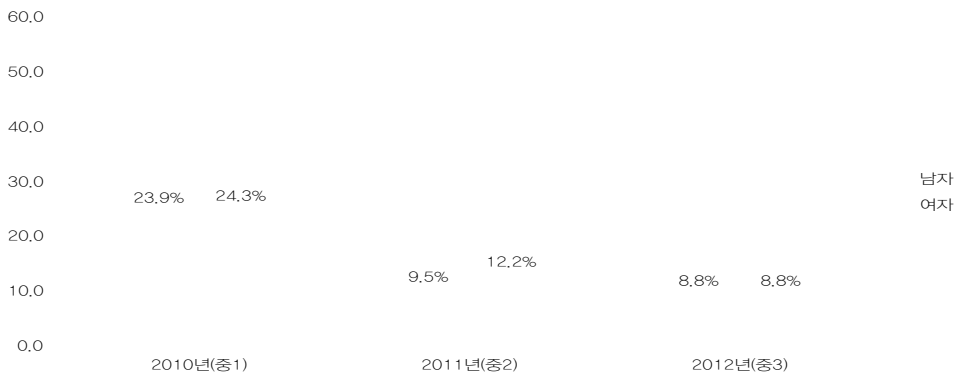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24.1	10.8	8.8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성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1학년 23.9%, 2학년 9.5%, 3학년 8.8%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학년 24.3%, 2학년 12.2%, 3학년 8.8%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6>.

표 III-46 중1 패널의 성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남자	23.9	9.5	8.8
여자	24.3	12.2	8.8
전체	24.1	10.8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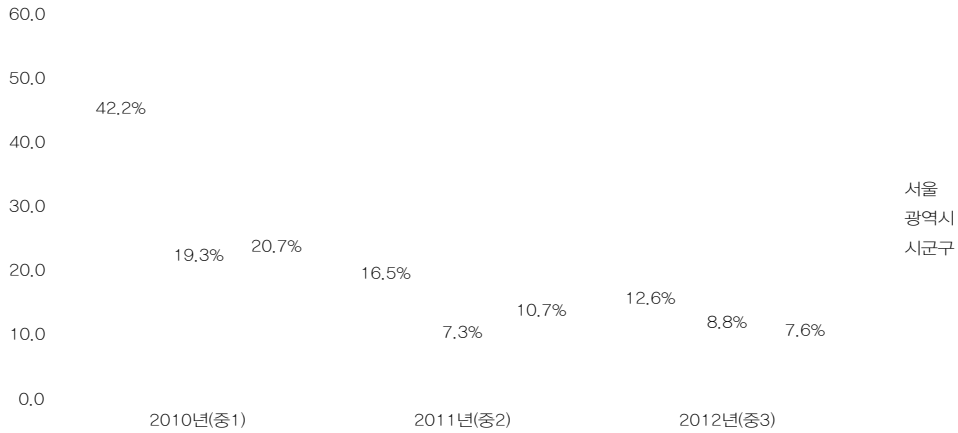
【그림 III-34】 중1 패널의 성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1학년 시기에는 42.2%, 2학년 16.5%, 3학년 12.6%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의 경우에는 1학년 19.3%, 2학년 7.3%, 3학년 8.8%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1학년 시기에 20.7%, 2학년 10.7%, 3학년 7.6%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7>.

표 III-47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서울	42.2	16.5	12.6
광역시	19.3	7.3	8.8
시군구	20.7	10.7	7.6
전체	24.1	10.7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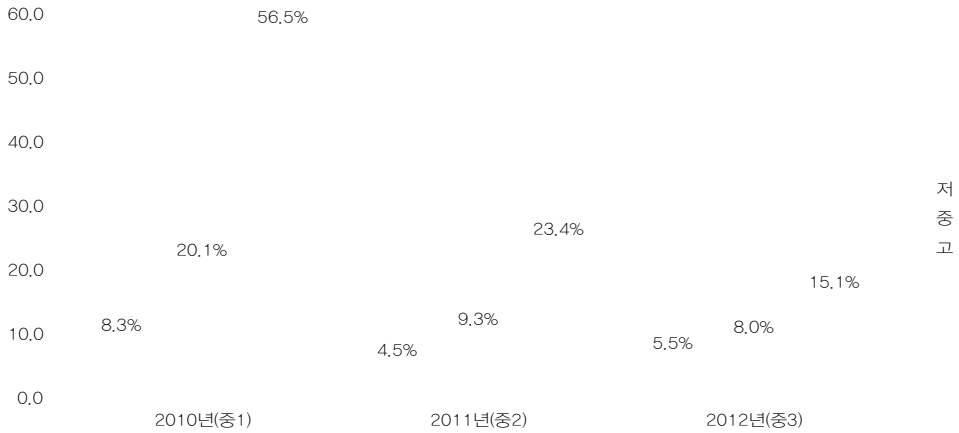
【그림 III-35】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방문 경험률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방문 경험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집단은 1학년 시기에 8.3%, 2학년 4.5%, 3학년 5.5%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소득 집단은 1학년 20.1%, 2학년 9.3%, 3학년 8.0%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1학년 56.5%, 2학년 23.4%, 3학년 15.1%가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8>.

표 III-48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방문 경험률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저	8.3	4.5	5.5
중	20.1	9.3	8.0
고	56.5	23.4	15.1
전체	24.3	11.0	8.8



【그림 III-36】 중1 패널의 가구소득 수준별 해외방문 경험을 변화

(2)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30.9%, 2학년 시기에는 46.2%, 3학년 시기에는 36.0%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9>. 다만, 1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2학년과 3학년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49 중1 패널의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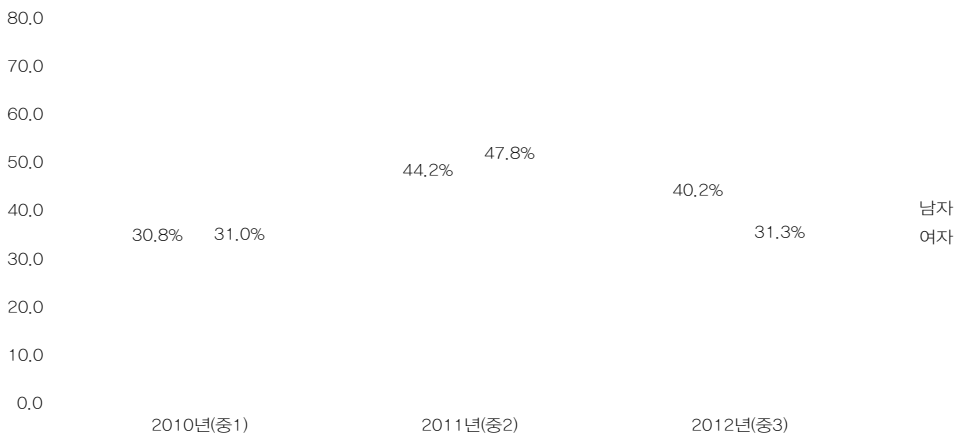
(단위 : %)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30.9	46.2	36.0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1학년 30.8%, 2학년 44.2%, 3학년 40.2%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1학년 31.0%, 2학년 47.8%, 3학년 31.3%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0>.

표 III-50 중1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남자	30.8	44.2	40.2
여자	31.0	47.8	31.3
전체	30.9	46.2	35.9



【그림 III-37】 중1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분석한 결과, 서울은 1학년 36.0%, 2학년 69.4%, 3학년 39.1%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1학년 23.1%, 2학년 23.8%, 3학년 25.0%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는 1학년 31.1%, 2학년 45.7%, 3학년 38.5%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표 III-51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서울	36.0	69.4	39.1
광역시	23.1	23.8	25.0
시군구	31.1	45.7	38.5
전체	30.9	48.1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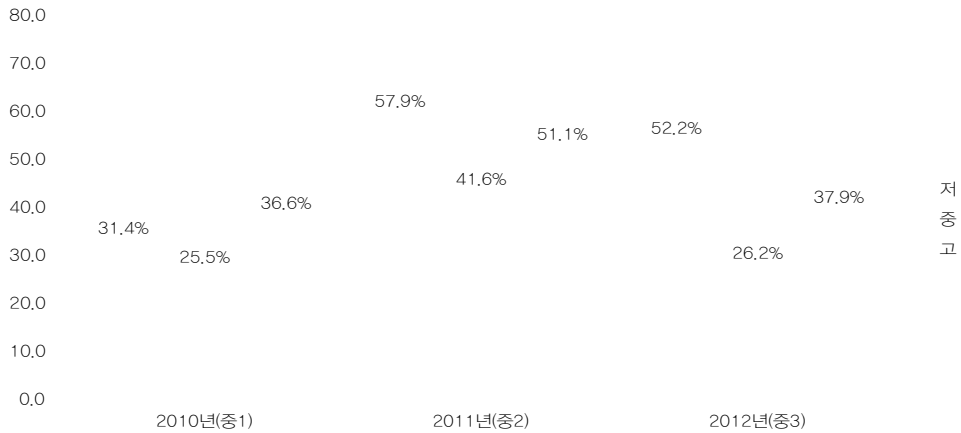
【그림 Ⅲ-38】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경험률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경험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집단은 1학년 시기에 31.4%, 2학년 57.9%, 3학년 52.2%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1학년 25.5%, 2학년 41.6%, 3학년 26.2%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1학년 시기에 36.6%, 2학년 51.1%, 3학년 37.9%가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2>.

표 Ⅲ-52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경험률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저	31.4	57.9	52.2
중	25.5	41.6	26.2
고	36.6	51.1	37.9
전체	30.6	46.6	33.0



【그림 III-39】 중1 패널의 가구 소득 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경험을 변화

(3)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해외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249.60일, 2학년 시기에는 34.06일, 3학년 시기에는 26.72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3>. 다만, 1학년에 사용된 조사표에서는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지금까지’로 질문이 진행되었고, 2학년과 3학년에서는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표 III-53 중1 패널의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단위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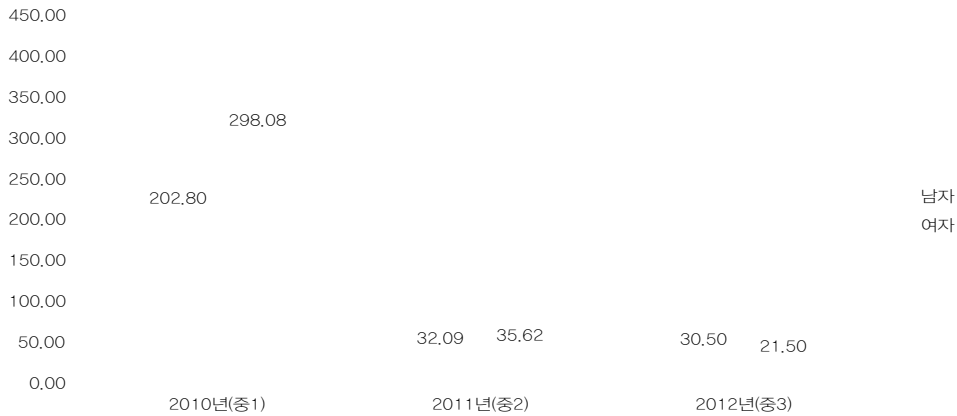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173	249.60	445.428	113	34.06	43.757	68	26.72	24.121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1학년 202.80일, 2학년 32.09일, 3학년 30.50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학년 298.08일, 2학년 35.62일, 3학년 21.50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4>

표 III-54 중1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단위 : 일)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남자	88	202.80	378.337	50	32.09	41.084	40	30.50	25.086
여자	85	298.08	503.356	63	35.62	46.040	29	21.50	22.093
전체	173	249.60	445.428	113	34.06	43.757	68	26.72	24.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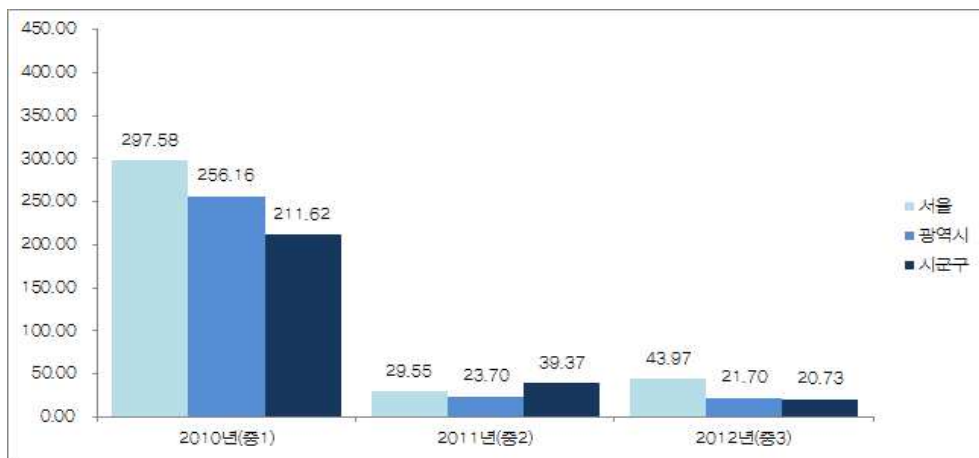
【그림 III-40】 중1 패널의 성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거주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1학년에는 297.58일, 2학년 29.55일, 3학년 43.97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거주 청소년은 1학년 256.16일, 2학년 23.70일, 3학년 21.70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1학년 211.62일, 2학년 39.37일, 3학년 20.73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5>.

표 III-55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단위 : 일)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서울	62	297.58	479.030	43	29.55	44.153	15	43.97	21.525
광역시	28	256.16	522.042	10	23.70	24.646	13	21.70	30.124
시군구	83	211.62	390.626	58	39.37	46.459	35	20.73	20.503
전체	173	249.60	445.428	111	34.11	44.065	63	26.29	24.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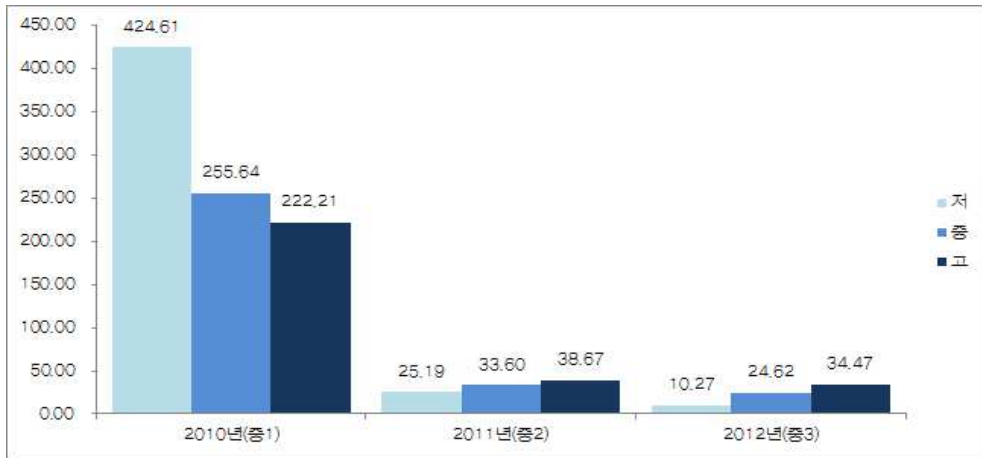
【그림 III-41】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집단은 1학년 424.61일, 2학년 25.19일, 3학년 10.27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1학년 255.64일, 2학년 33.60일, 3학년 24.62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1학년 222.21일, 2학년 38.67일, 3학년 34.47일 해외교육·연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6>.

표 III-56 중1 패널의 가구 소득규모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단위 : 일)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저	11	424.61	641.991	11	25.19	41.623	11	10.27	8.389
중	70	255.64	492.015	51	33.60	48.560	26	24.62	26.755
고	83	222.21	378.160	47	38.67	40.598	22	34.47	20.991
전체	163	249.98	449.447	109	34.92	44.381	59	25.58	23.581



【그림 III-42】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해외교육·연수 기간 변화

4) 중1 패널의 팬덤활동 경험 변화

(1)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73.5%, 2학년 시기에는 58.4%, 3학년 시기에는 53.8%로 나타났다<표 III-57>.

표 III-57 중1 패널의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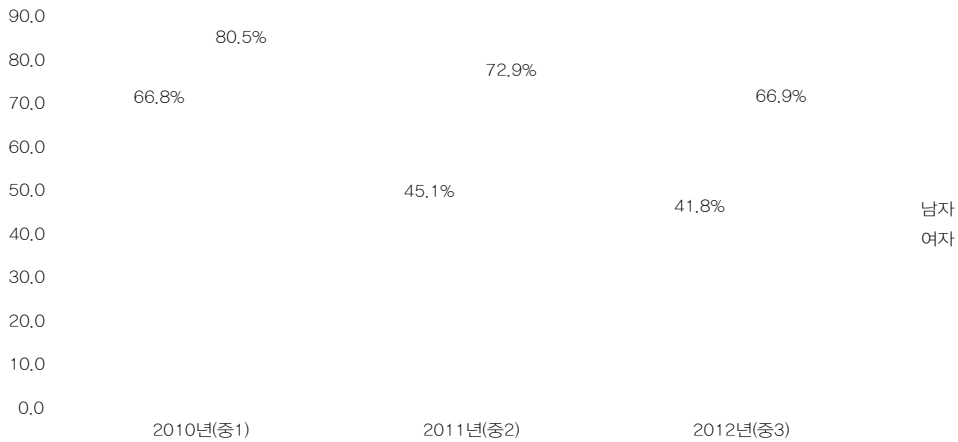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73.5	58.4	53.8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1학년 66.8%, 2학년 45.1%, 3학년 41.8%가 선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학년 80.5%, 2학년 72.9%, 3학년 66.9%가 선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8>.

표 III-58 중1 패널의 성별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남자	66.8	45.1	41.8
여자	80.5	72.9	66.9
전체	73.5	58.4	53.9



【그림 III-43】 중1 패널의 성별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를 도시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 청소년의 경우는 1학년 시기에 77.0%, 2학년에는 56.4%, 3학년에서는 53.4%가 선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1학년 71.6%, 2학년 57.9%, 3학년 51.6%가 선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는 1학년 73.3%, 2학년 59.6%, 3학년 54.8%가 선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9>.

표 III-59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서울	77.0	56.4	53.4
광역시	71.6	57.9	51.6
시군구	73.3	59.6	54.8
전체	73.5	58.6	53.7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를 가구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 집단은 1학년 74.5%, 2학년 59.1%, 3학년 54.1%가 선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1학년 73.9%, 2학년 59.0%, 3학년 54.6%가 선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집단은 1학년 70.2%, 2학년 55.7%, 3학년 51.2%가 선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0>.

표 III-60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저	74.5	59.1	54.1
중	73.9	59.0	54.6
고	70.2	55.7	51.2
전체	73.4	58.4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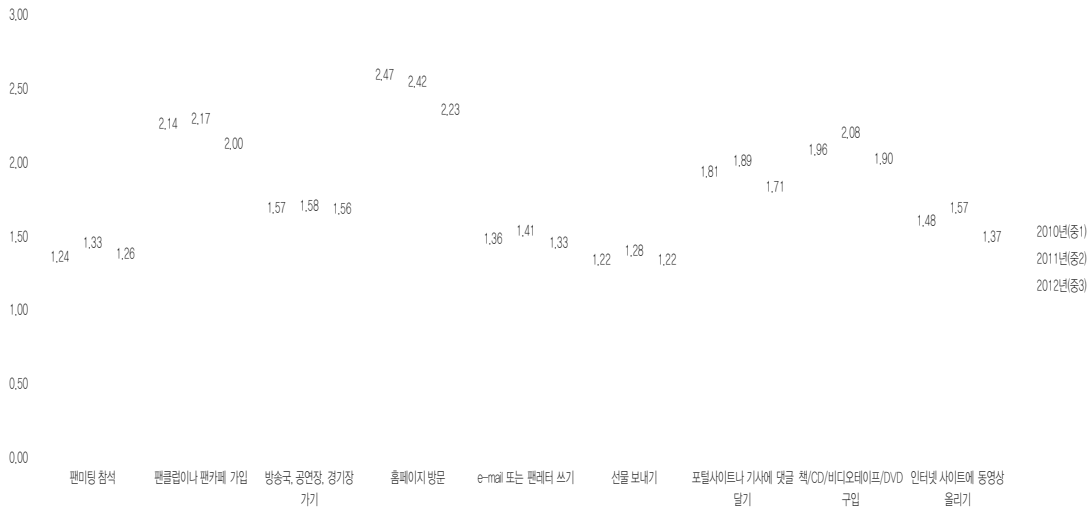
(2)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팬덤활동을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후,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팬덤활동 참여정도(횟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미팅 참석'은 1학년 1.24, 2학년 1.33, 3학년 1.26으로 나타났으며,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은 1학년 2.14, 2학년 2.17, 3학년 2.00으로 나타났으며, '방송국/공연장/경기장 가기'는 1학년 1.57, 2학년 1.58, 3학년 1.5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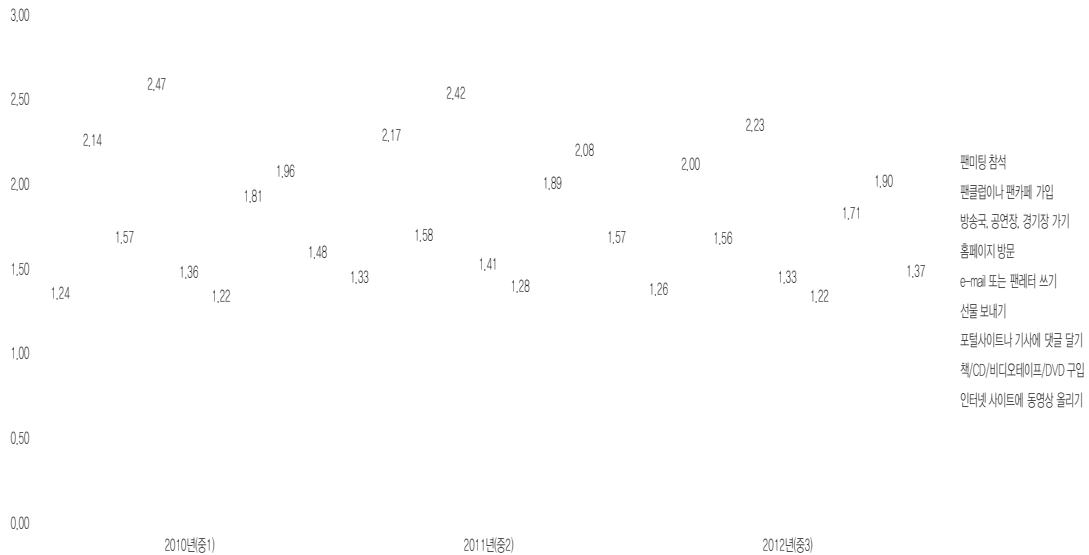
또한 '홈페이지 방문'은 1학년 2.47, 2학년 2.42, 3학년 2.23으로 나타났으며, 'e-mail 또는 팬레터 쓰기'는 1학년 1.36, 2학년 1.41, 3학년 1.33으로 나타났으며, '선물 보내기'는 1학년 1.22, 2학년 1.28, 3학년 1.22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사이트나 기사에 댓글 달기'는 1학년 1.81, 2학년 1.89, 3학년 1.71로 나타났으며, '책/CD/비디오테이프/DVD 구입'은 1학년 1.96, 2학년 2.08, 3학년 1.90,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 올리기'는 1학년 1.48, 2학년 1.57, 3학년 1.37로 나타났다 <표 III-61>.

표 III-61 중1 패널의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팬미팅 참석	1725	1.24	0.529	1331	1.33	0.641	1215	1.26	0.607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	1725	2.14	1.141	1331	2.17	1.159	1215	2.00	1.138
방송국, 공연장, 경기장 가기	1725	1.57	0.857	1332	1.58	0.860	1215	1.56	0.874
홈페이지 방문	1725	2.47	1.131	1331	2.42	1.167	1215	2.23	1.154
e-mail 또는 팬레터 쓰기	1725	1.36	0.702	1331	1.41	0.759	1215	1.33	0.707
선물 보내기	1725	1.22	0.522	1331	1.28	0.613	1215	1.22	0.545
포털사이트나 기사에 댓글 달기	1725	1.81	1.072	1331	1.89	1.116	1214	1.71	1.036
책/CD/비디오테이프/DVD 구입	1725	1.96	1.071	1331	2.08	1.132	1215	1.90	1.101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 올리기	1725	1.48	0.836	1331	1.57	0.894	1215	1.37	0.759



【그림 III-44】 중1 패널의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그림 III-45】 중1 패넬의 학년별 팬덤활동 참여정도 변화

중학교 1학년 패넬의 성별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 방문’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1학년 2.12, 2학년 1.95, 3학년 1.79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학년 2.78, 2학년 2.74, 3학년 2.53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1학년 1.82, 2학년 1.76, 3학년 1.63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학년 2.42, 2학년 2.44, 3학년 2.26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물 보내기’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1학년 1.20, 2학년 1.28, 3학년 1.17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학년 1.23, 2학년 1.29, 3학년 1.26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미팅 참석’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1학년 1.22, 2학년 1.33, 3학년 1.21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1학년 1.25, 2학년 1.33, 3학년 1.30으로 나타났다<표 III-62>.

표 III-62 중1 패널의 성별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구분	항목	성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팬미팅 참석	남자		811	1.22	0.508	534	1.33	0.652	491	1.21	0.566
	여자		915	1.25	0.548	796	1.33	0.635	724	1.30	0.632
	소계		1725	1.24	0.529	1331	1.33	0.641	1215	1.26	0.607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	남자		811	1.82	1.039	534	1.76	0.988	491	1.63	0.973
	여자		915	2.42	1.155	796	2.44	1.184	724	2.26	1.172
	소계		1725	2.14	1.141	1331	2.17	1.159	1215	2.00	1.138
방송국, 공연장, 경기장 가기	남자		811	1.66	0.927	534	1.55	0.838	491	1.49	0.848
	여자		915	1.49	0.781	798	1.59	0.875	724	1.60	0.889
	소계		1725	1.57	0.857	1332	1.58	0.860	1215	1.56	0.874
홈페이지 방문	남자		810	2.12	1.078	534	1.95	1.053	491	1.79	1.056
	여자		915	2.78	1.086	796	2.74	1.130	724	2.53	1.123
	소계		1725	2.47	1.131	1331	2.42	1.167	1215	2.23	1.154
e-mail 또는 팬레터 쓰기	남자		811	1.30	0.618	534	1.32	0.671	491	1.24	0.607
	여자		915	1.42	0.764	796	1.47	0.807	724	1.40	0.760
	소계		1725	1.36	0.702	1331	1.41	0.759	1215	1.33	0.707
선물 보내기	남자		811	1.20	0.498	534	1.28	0.642	491	1.17	0.473
	여자		915	1.23	0.542	796	1.29	0.593	724	1.26	0.586
	소계		1725	1.22	0.522	1331	1.28	0.613	1215	1.22	0.545
포털사이트나 기사에 댓글 달기	남자		811	1.64	0.955	534	1.67	0.957	491	1.51	0.922
	여자		915	1.97	1.145	796	2.03	1.190	723	1.84	1.087
	소계		1725	1.81	1.072	1331	1.89	1.116	1214	1.71	1.036
책/CD/비디오테이프/ DVD 구입	남자		811	1.73	0.948	534	1.81	1.041	490	1.54	0.897
	여자		915	2.16	1.132	796	2.26	1.154	724	2.14	1.158
	소계		1725	1.96	1.071	1331	2.08	1.132	1215	1.90	1.101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 올리기	남자		811	1.37	0.744	534	1.48	0.824	491	1.30	0.723
	여자		915	1.58	0.899	796	1.63	0.933	724	1.42	0.780
	소계		1725	1.48	0.836	1331	1.57	0.894	1215	1.37	0.759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도시규모별 팬덤활동 분야별 참여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 방문'의 경우 서울은 1학년 2.44, 2학년 2.40, 3학년 2.18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1학년 2.46, 2학년 2.41, 3학년 2.22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는 1학년 2.49, 2학년 2.42, 3학년 2.23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의 경우 서울은 1학년 2.12, 2학년 2.22, 3학년 1.99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1학년 2.10, 2학년 2.11, 3학년 2.02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는 1학년 2.15, 2학년 2.16, 3학년 2.01으로 나타났다<표 III-63>.

표 III-63 중1 패널의 도시규모별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항목	도시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팬미팅 참석	서울	314	1.24	0.519	212	1.48	0.713	196	1.38	0.750
	광역시	449	1.25	0.529	342	1.27	0.583	305	1.26	0.623
	시군구	963	1.22	0.533	720	1.30	0.617	663	1.23	0.544
	소계	1725	1.24	0.529	1274	1.32	0.629	1164	1.26	0.606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	서울	314	2.12	1.153	212	2.22	1.224	196	1.99	1.141
	광역시	449	2.10	1.133	342	2.11	1.175	305	2.02	1.167
	시군구	963	2.15	1.142	720	2.16	1.130	663	2.01	1.136
	소계	1725	2.14	1.141	1274	2.15	1.158	1164	2.01	1.144
방송곡, 공연장, 경기장 가기	서울	314	1.74	0.941	212	1.85	0.969	196	1.77	0.966
	광역시	449	1.60	0.891	342	1.50	0.822	305	1.51	0.842
	시군구	963	1.50	0.803	721	1.51	0.816	663	1.49	0.825
	소계	1725	1.57	0.857	1276	1.57	0.854	1164	1.55	0.860
홈페이지 방문	서울	314	2.44	1.161	212	2.40	1.193	196	2.18	1.125
	광역시	449	2.46	1.116	342	2.41	1.170	305	2.22	1.177
	시군구	962	2.49	1.130	720	2.42	1.158	663	2.23	1.150
	소계	1725	2.47	1.131	1274	2.42	1.166	1164	2.22	1.153
e-mail 또는 팬레터 쓰기	서울	314	1.38	0.697	212	1.51	0.882	196	1.44	0.831
	광역시	449	1.33	0.672	342	1.35	0.705	305	1.35	0.733
	시군구	963	1.38	0.717	720	1.40	0.729	663	1.29	0.657
	소계	1725	1.36	0.702	1274	1.41	0.751	1164	1.33	0.711
선물 보내기	서울	314	1.24	0.544	212	1.37	0.672	196	1.30	0.677
	광역시	449	1.22	0.517	342	1.21	0.540	305	1.25	0.560
	시군구	963	1.21	0.518	720	1.28	0.601	663	1.19	0.488
	소계	1725	1.22	0.522	1274	1.28	0.600	663	1.19	0.488
포털사이트나 기사에 댓글 달기	서울	314	1.80	1.056	212	1.95	1.209	196	1.60	0.988
	광역시	449	1.77	1.031	342	1.89	1.113	305	1.74	1.044
	시군구	963	1.84	1.096	720	1.86	1.091	663	1.73	1.054
	소계	1725	1.81	1.072	1274	1.89	1.117	1164	1.71	1.041
책/CD/비디오테이프/DVD 구입	서울	314	2.05	1.084	212	2.26	1.142	196	1.94	1.156
	광역시	449	2.01	1.109	342	2.00	1.139	305	1.91	1.111
	시군구	963	1.91	1.047	720	2.05	1.115	663	1.89	1.088
	소계	1725	1.96	1.071	1274	2.07	1.129	1163	1.90	1.105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 올리기	서울	314	1.48	0.813	212	1.57	0.888	196	1.40	0.787
	광역시	449	1.43	0.777	342	1.54	0.876	305	1.36	0.727
	시군구	963	1.51	0.869	720	1.56	0.892	663	1.37	0.780
	소계	1725	1.48	0.836	1274	1.56	0.886	1164	1.38	0.767

반면에 '선물 보내기'의 경우 서울은 1학년 1.24, 2학년 1.37, 3학년 1.30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1학년 1.22, 2학년 1.21, 3학년 1.25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는 1학년 1.21, 2학년 1.28, 3학년 1.19로 나타났다. 또한 '팬미팅 참석'의 경우 서울은 1학년 1.24, 2학년 1.48, 3학년 1.38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1학년 1.25, 2학년 1.27, 3학년 1.26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는 1학년 1.22, 2학년 1.30, 3학년 1.23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팬덤활동 분야별 참여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 방문'의 경우 저소득 집단은 1학년 2.52, 2학년 2.47, 3학년 2.20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1학년 2.48, 2학년 2.45, 3학년 2.26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 집단은 1학년 2.44, 2학년 2.34, 3학년 2.15로 나타났다. 또한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의 경우 저소득 집단은 1학년 2.09, 2학년 2.16, 3학년 1.99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1학년 2.16, 2학년 2.17, 3학년 2.02로 나타났으며, 고소득 집단은 1학년 2.19, 2학년 2.21, 3학년 1.90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물 보내기'의 경우 저소득 집단은 1학년 1.20, 2학년 1.31, 3학년 1.19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1학년 1.21, 2학년 1.26, 3학년 1.24로 나타났으며, 고소득 집단은 1학년 1.27, 2학년 1.32, 3학년 1.24로 나타났다. 또한 '팬미팅 참석'의 경우 저소득 집단은 1학년 1.19, 2학년 1.33, 3학년 1.23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1학년 1.24, 2학년 1.31, 3학년 1.27로 나타났으며, 고소득 집단은 1학년 1.27, 2학년 1.39, 3학년 1.30으로 나타났다<표 III-64>.

표 III-64 중1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별 팬덤활동 영역별 참여정도 변화

구분	가구 소득수준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팬미팅 참석	저	324	1.19	0.479	247	1.33	0.649	226	1.23	0.571
	중	1015	1.24	0.536	787	1.31	0.608	726	1.27	0.591
	고	283	1.27	0.546	220	1.39	0.707	195	1.30	0.707
	소계	283	1.27	0.546	1254	1.32	0.634	1147	1.27	0.608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	저	324	2.09	1.126	247	2.16	1.146	226	1.99	1.093
	중	1015	2.16	1.141	787	2.17	1.160	726	2.02	1.147
	고	283	2.19	1.170	220	2.21	1.184	195	1.90	1.116
	소계	1622	2.15	1.143	1254	2.18	1.161	1147	1.99	1.131

구분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항목	가구 소득수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방송국, 공연장, 경기장 가기	저	324	1.48	0.765	247	1.53	0.808	226	1.45	0.778
	중	1015	1.57	0.865	789	1.56	0.849	726	1.56	0.861
	고	283	1.65	0.877	220	1.71	0.964	195	1.60	0.920
	소계	1622	1.57	0.849	1256	1.58	0.864	1147	1.54	0.857
홈페이지 방문	저	324	2.52	1.127	247	2.47	1.110	226	2.20	1.134
	중	1014	2.48	1.126	787	2.45	1.168	726	2.26	1.157
	고	283	2.44	1.154	220	2.34	1.206	195	2.15	1.119
	소계	1621	2.48	1.131	1254	2.43	1.163	1147	2.23	1.146
e-mail 또는 팬레터 쓰기	저	324	1.33	0.665	247	1.44	0.793	226	1.31	0.653
	중	1015	1.37	0.723	787	1.39	0.723	726	1.34	0.701
	고	283	1.37	0.693	220	1.47	0.852	195	1.36	0.815
	소계	1622	1.36	0.706	1254	1.41	0.761	1147	1.34	0.712
선물 보내기	저	324	1.20	0.513	247	1.31	0.653	226	1.19	0.482
	중	1015	1.21	0.513	787	1.26	0.588	726	1.24	0.554
	고	283	1.27	0.597	220	1.32	0.667	195	1.24	0.631
	소계	1622	1.22	0.529	1254	1.28	0.616	1147	1.23	0.554
포털사이트나 기사에 댓글 달기	저	324	1.75	1.060	247	1.81	1.046	226	1.59	0.957
	중	1015	1.83	1.074	787	1.86	1.119	725	1.75	1.042
	고	283	1.89	1.101	220	2.10	1.197	195	1.76	1.110
	소계	1622	1.83	1.076	1254	1.89	1.122	1146	1.72	1.039
책/CD/비디오테이프/ DVD 구입	저	324	1.81	1.011	247	1.95	1.081	226	1.76	1.015
	중	1015	1.97	1.077	787	2.06	1.132	725	1.91	1.105
	고	283	2.13	1.096	220	2.35	1.182	195	2.02	1.164
	소계	1622	1.97	1.072	1254	2.09	1.137	1146	1.90	1.100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 올리기	저	324	1.41	0.765	247	1.55	0.828	226	1.32	0.681
	중	1015	1.50	0.844	787	1.56	0.912	726	1.40	0.773
	고	283	1.54	0.900	220	1.63	0.942	195	1.41	0.839
	소계	1622	1.49	0.840	1254	1.57	0.901	1147	1.38	0.768

제 4 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제 4 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체험활동과 문화활동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인식 등 정서적 차원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나 사회적 관계의 발달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존 학교의 전통적인 교과 위주의 교육 방식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체험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교과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향후 청소년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실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중단 조사와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2010년 당시 각각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던 청소년이 각각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되는 2012년까지의 3년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의 참여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실태와 추세를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년간 체험활동 9개 영역별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봉사 활동(61.3% → 52.9% → 56.8%)과 직업체험 활동(34.0% → 21.3% → 28.2%)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참여율이 감소했다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둘째, 중1 패널의 중학교 3년간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체험활동 참여율과 비슷하게 중학교 1학년 시기에서 2학년 시기에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높아졌다가 3학년 시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봉사 활동(9.93시간 → 10.37시간 → 10.75시간)은 3년간 계속해서 참여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현행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무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체험활동 참여 후 만족도를 살펴보면, 직업체험 활동과 자기개발 활동은 중학교 3년간 계속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지만, 과학·정보 활동과 봉사 활동은 3년간 계속해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맥락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체험활동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학·정보 활동, 모험·개척 활동, 환경보존 활동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희망 정도가 감소한 반면에, 건강·보건 활동이나 교류 활동, 문화·예술 활동, 직업체험활동 등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학년별로 선호하는 체험활동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내의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학교외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 만족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지만 교외 공식 동아리활동의 경우는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2010년)부터 6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문화활동(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의 경험율이나 경험정도(횟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섯째,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년간 문화활동 경험율이나 경험정도의 경우도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 정책제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의 참여경험 여부와 정도, 만족도는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 수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문화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요구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에서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의 현황이나 실태를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교급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내용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학교 단체 위주의 일회성 체험활동, 도시규모나 청소년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전문화된 체험활동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체험활동 유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경우는 모험·개척 활동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는 직업체험 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봉사 활동의 경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년별로 청소년의 학령기별 특성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한 전문화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문화활동 참여격차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3년간 문화활동과 여행 등의 경험율과 경험정도,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년간 체험활동 참여율과 참여정도, 문화활동과 여행의 참여율과 참여정도 등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나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화활동과 같이 사회적 기반이 필요한 활동의 경우는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외국여행 경험율은 이러한 배경에 따른 차이가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에 나타나는 격차가 중학교 시기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성별 특성이나 거주지역의 규모 등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활동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부터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중학생이 학교 밖에서 참여하는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중학생의 학교내 동아리활동 참여율이 학교외 동아리활동 참여율보다 매우 높게 조사되었고, 학교내 동아리활동의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교 외에서의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참여한 후의 만족도는 학교외 동아리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동아리활동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밖에서 참여하는 동아리활동을 교내 동아리활동과 동일하게 학교에서 인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이나 참여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지만,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의 선호도가 높은 직업체험 활동의 참여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희망수준이 가장 낮게 조사된 것은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체험활동과 달리 문화활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 모두 참여율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선호도를 고려하여 체험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확대,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마일리지 제도 등)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활동시설과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체험활동이나 문화활동의 효과는 체험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이 지닌 사회적 중요성을 정책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내 시설 및 관련 사업 전달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관우·남진열(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김소희(2007). 수련활동 체험이 청소년의 생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2010). 청소년의 체험활동, 자아요인, 유의미타자,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나·박옥식(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인숙(2009).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정도가 리더십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미·김태균(2012). 청소년체험활동이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완(2012). 고등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심(2007). 청소년의 문화활동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종수·성준모(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류시영·강방훈(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 문재우·박재산(2013). 중학생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4(2), 29-45.
- 박재숙(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배천웅·남혜선(2013).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 다문화 수용성,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인식을 중심으로.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종국(2004). 체험활동 중심 진로탐색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7(2), 92-105.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윤철(2011). 청소년활동의 참여와 시민성의 관계 : 광명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2005). 학교 밖 일상 체험활동의 청소년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372-396.
- 이미자(2012). 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2009). 가족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채유정(2014).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 전명순·김태균(2014).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38.
- 조미영(2010). 청소년 활동의 경험학습 모형에 따른 경로분석.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메뉴얼. 동국대학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허철수·강옥련(2010).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2(3), 25-46.
- 황진구·허효주·안현미(20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효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Ⅳ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Ⅳ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Ⅳ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Ⅳ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I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해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해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인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해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중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욱태
-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악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Abstract

Changes in Youths' Participation in Youth Experiential and Cultural Activities

The study is based on data from the research titled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conducted in three years from 2010 and 2012 on elementary students from 4th to 6th grade(elementary panel 4) and middle school students from grade 1st to 3rd(middle school panel 1). The study looks at the changes in patterns in the way the youth participate in experiential and cultural activ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middle school panel 1, the data on the experiential activities participation rate and the types of the activities shows that the rate of participation and the time spent on the activities decrease as the kids move on to higher grade, although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nd job experience activities declines in second year in middle school but starts picking up in the third year. In most experiential activities, the bigger the community the children lives in, and the higher the income of the families the children belongs to, the higher the rate of participation is.

Second, with regard to the types of activities preferred by middle schoolers, there is a decrease in preference in activities such as the ones related to science and information, exploration and adventure, environment preservation over the three years, whereas there is steady increase in preferences in these period to activities such as the ones related to health and wellbeing, exchange, culture and art, and job experience.

Third,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school clubs increases steadily in the three years of middle school whereas the participation in outside school clubs decreases over the same period, although the expressed satisfaction from participants indicates the higher preferences towards outside school clubs.

Fourth, the analysis of the data on elementary panel 4 reveals little change in cultural activities participation rate in the three years up to 6th grade, although girls more than boys, and kids from bigger cities and from families with bigger incomes are shown to have higher participation rate and bigger satisfaction. The data on first year middle schoolers showed similar trend in participation rate of cultural activities.

Key words: elementary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tial activities, club activities, cultural activities, longitudinal analysi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연구보고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
기초분석보고서 Ⅲ
-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2)503-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40-3 94330

979-11-5654-036-6 (세트)